

碩士學位 請求論文

開化期 動物寓話小說 研究

－ 「禽獸會議錄」과 「警世鐘」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梁 東 起

1994年 2月 日

開化期 動物寓話小說 研究

— 「禽獸會議錄」과 「警世鐘」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梁 東 起



梁東起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김복희 
審査委員 안성득 
審査委員 文聖淑 

<抄 錄>

開化期 動物寓話小說 研究

梁 東 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는 개화기 대표적인 동물우화소설인 안국선의 「금수회의록」과 김필수의 「경세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 소설이 배태된 시대·사상적 배경과 작품분석을 통한 소설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소설에 관한 연구가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 두 작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를 통하여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작품은 자주독립과 민권사상이 지배적 사조로 등장하던 개화의 3단계에 출간되었다. 동물우화 형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사실적인 풍자의식으로 다룬 작품들로서, 개인의 도덕성 회복과 전체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높은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독교도로서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작자들은 온유, 근면, 인내 등 기독교인의 생활신조를 작품 가운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금수회의록」의 경우는 기독교사상과 유교사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경세중」은 완전히 기독교사상에 경도되어 있다.

셋째, 「금수회의록」은 국내외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고는 이의 부당성을 직접적으로 공박하고 있다. 「경세중」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색을 띠고 있지 않지만, 이면에는 성경적 알레고리에 의하여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이 두 작품은 일반적으로 동물에 추상화되어 있는 인간적 속성을 역전시키거나 확대하여 인간 심성의 결함과 인륜도덕의 타락 및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다. 언어적 아이러니와 극적 아이러니에 의한 풍자의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과 금수의 전도된 가치를 광정(匡正)하려는 창작의도를 나타내고 있고, 풍자의 어조는 조소와 야유, 그리고 통매(痛罵)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두 작품 모두 전체적인 구조는 액자형태를 이루고 있다. 꿈으로 들어가는 형태와 유산객들이 금수회의를 엿보는 광경이 도입 액자이며, 작품 끝에 화자인 작가가 개입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이 깨우쳤는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종결 액자이다. 본론에 해당하는 금수 곤충의 발언 내용은 내부소설에 해당된다.

여섯째, 「금수회의록」은 꿈의 형식을 빌어 허구적 동물 세계로 이입되고 있으며, 「경세중」은 꿈의 장치는 없으나 금수와 곤충들의 친목회에서 발언하는 형태는 「금수회의록」의 회의 형태와 같다. 다만, 「경세중」에는 기념 '촬영' 순서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일곱째, 두 작품 모두 이중 시점을 택하고 있다. 도입 액자와 종결 액자는 작자 자신의 내면 심리와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지적 시점이며, 내부소설은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를 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금수들의 발언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작품 끝의 폐회 부분과 촬영 부분에서 독백을 통하여 독자를 교훈하고 깨우치려는 창작의도를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目 次

<抄 錄>

I. 序論	1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1
2. 研究史 檢討	3
II. 理論的 背景	10
1. 自主自彊意識	10
2. 鑑戒主義와 悔改意志	16
3. 寓話의 概念과 特性	27
III. 動物寓話小說의 特徵	34
1. 아이러니와 價値顛倒	34
2. 諷刺와 人類警醒	46
3. 聖經的 알레고리와 現實批判	58
IV. 結論	64
參考文獻	68
Summary	72

I. 序論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이 연구는 신소설¹⁾ 가운데 대표적인 동물우화소설이라 할 수 있는 安國善의 「금수회의록」과 金弼秀의 「경세종」을 대상으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하나는 두 작품이 배태되기까지의 시대·사상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동물우화의 개념과 특성 및 작품분석을 통한 소설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신소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개화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산출된 문학 갈래로 당대의 현실과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개화기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구체제인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면서 민족 내부의 저항 및 각성 위에 서구 근대문화의 충격이 더해져서 근대화 의식의 초석이 놓인 시기로 정의되고 있다.²⁾

1)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pp. 8-13에 의하면 신소설은 전대 문학의 대표격인 고대소설(구소설)에 대항하여 새로운 문학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라 하고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개화기소설(송민호, 이재선), 애국계몽기소설(윤명구)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신소설이라 통칭한다.

2)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1969), p. 31에 의하면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40년간을 개화기로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외, 『개화기문학론』, (방송통신대출판부, 1989), p. 2에서는 개화기 문학의 범위와 영역을 갑오경장(1894) 이후부터 1910년대 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문물 수용과정에서 야기된 기존질서에 대한 상충적 현상은 '開化'와 '衛正斥邪'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당대 현실과 기존질서를 혁파하고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려는 개화의지와, 이에 대응하여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자기보호와 방어의식이 맞부딪히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창작된 신소설들은 개화기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는 축도가 될 것이다.

또한 신소설의 한 특수형태로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물우화 소설들이 몇몇 등장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이다.³⁾ 이러한 동물우화소설은 유형적인 인간사회의 事象이나 인간행위를 동물에 假託(vehicle)하여 간단한 교훈적 명제를 혼시해 주는 단편담인 동물우화가 소설형태로 발전한 것이거나 그러한 동물우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소설들을 말한다.⁴⁾ 또한 동물우화는 필연적으로 풍자를 동반하고 있다. 풍자는 독자의 감정이입을 차단하고 작중 상황을 부조리하게 왜곡시켜, 비판받아야 할 현상과 인식되어야 할 진실을 역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부패한 세계와 부도덕한 인간의 惡行을 폭로하고 조롱함으로써 이상적인 세계와 모범적인 인간을 반어적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부정적 현상에 대한 부정이 보다 강한 긍정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들이 어떤 인간유형을 대표하여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형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다.⁵⁾ 이와 같이 특

3)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2), pp. 266-268에 의하면 이 밖의 동물우화 단편담으로 閔天權의 「송소밀봉」(장학월보 1권 2호, 1908. 2.)과 陸定洙의 「과라의자」(장학월보 1권 4호, 1908. 4.)가 있다. 두 작품 모두 신교육사상을 동물을 매개로 하여 나타낸 것이나, 구성이 매우 빈약하고 길어도 아주 짧다.

4) 김재환, 「한국동물우화소설의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 논문, 1988), p3.

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출현했다가 소멸되는 양식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문학양식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특히 이 두 작품은 여타의 신소설과는 달리 연설 토론체의 문장을 취하고 있으며, 예리한 비판의식과 인간에 대한 멸시와 풍자를 철두철미하게 담고 있는 점 등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신소설 중에서도 특이한 동물우화소설이 배태된 시대·사상적 배경과 동물우화의 개념을 고찰한 후, 이같은 측면에서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의 소설적 특징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의 텍스트는 김윤식외 3인 공편인 亞細亞文化社刊(1978)의 「신소설·번안(역)소설·2」(영인본)로 하였으며, 작품 인용시는 원전의 표기에 따르기로 한다.

2. 研究史 檢討

신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1930년대 후반부터 金台俊과 林和에 의하여 처음 시도된 이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와 그 문학사적 평가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소설에 대한 연구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작품을 분석하고 신소설의 표현양상과 서술구조를 연구한 작품론적 연구⁷⁾, 둘째, 신소설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실증적인 자

5) 전대의 설화, 동물담, 가전체 등이 동물우화의 원형이며, 개화기 이후의 송완식의 「만국대회록」(1926)과 김성한의 「개구리」(1955)에 이르기까지 동물우화 형식은 이어지고 있다.

6) 문성숙, 「한국 근대소설론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1), p. 92.

7) 이재선,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일조각, 1972)

전광용, 「신소설 연구」, (새문사, 1986)

료를 통하여 연구한 작가론적 연구⁸⁾, 셋째,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과 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문학사적 연구⁹⁾, 넷째, 신소설을 고대소설과 비교하여 역사적 변이와 그 이행과정을 추적하는 연구¹⁰⁾, 다섯째, 신소설을 당시의 사회상황 및 사상과 관련지어 문학과 사회를 相補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문학·사회학적 연구¹¹⁾, 여섯째, 신소설에 수용된 외래문화의 영향과 충격을 살핀 비교문학적 연구¹²⁾, 일곱째, 개화기의 소설관과 소설론에 관한 연구¹³⁾ 등 여러 관점에서 시도되어

- 김영택, 『한국 근대소설론』, (문지사, 1991)
 권영민, “개화기소설의 문체 연구”, 『현대문학연구·14집』, (서울대학원, 1975)
 유양선, “개화기 서사문학 연구”, 『현대문학연구·28집』, (서울대학원, 1979)
 8) 전광용, “이인직 연구”, 『서울대 논문집·6집』, (서울대학교, 1957)
 윤명구, “안국선 연구”, 『현대문학연구·8집』, (서울대학원, 1973)
 정숙희, “신소설작가 최찬식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74)
 이용남, “이해조 연구”, 『현대문학연구·39집』, (서울대학원, 1983)
 홍경표, 『한국 근대소설 작가의식 연구』, (형설출판사, 1984)
 9) 백철·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전광용, “한국 소설발달사·하”,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1)
 김윤식·김현,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1973)
 조동일, 『한국 문학통사·4』, (지식산업사, 1986)
 최원식, 『한국 근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10)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 출판부, 1973)
 송민호, 『한국 개화기소설의 사적 이해』, (일지사, 1975)
 11) 이재선, “개화기소설의 문예사회학”, 『개화기문학론』, (형설출판사, 1978)
 -----, 『한국 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전광용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홍일식, 『한국 개화기의 문학사상 연구』, (열화당, 1982)
 조신권, 『한국 문학과 기독교』, (연세대 출판부, 1983)
 조남현, 『한국 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12) 芹川哲世, “한일 개화기 정치소설의 비교연구”, 『현대문학연구·15집』, (서울 대학원, 1975)
 성현자, 『신소설에 미친 만청소설의 영향』, (정음사, 1985)
 13) 권영민, “한국 근대소설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4)

상당한 업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시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에 관한 연구사에 한정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白鐵은 안국선이 서울 태생이며, 1907년에 「演說方法」(演說法方의 오기인 듯; 필자)을 저술한 일이 있고, 신소설로는 특이한 「금수회의록」이라는 우화소설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해방 후 그의 소설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여기에 김필수와 「경세종」에 관한 언급은 없다.

全光鏞은 안국선과 그의 소설을 소개하면서 「금수회의록」은 우화소설로서 주제가 뚜렷한 작품으로, 그리고 「공진회」를 최초의 단편 소설 집으로서 그 의의를 높이 사고 있다. 또한 김필수와 「경세종」에 대해서는 '김교제와 그 밖의 작가'라는 항목에서 작가와 제목만 언급하였다.¹⁵⁾

李在銑은 신소설의 비유적인 표현이 배경이나 인물의 묘사에서 장식적인 수사로 고정된 경향과는 달리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에서는 풍자적 표현이 성공적으로 사회비판의 몫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金允植은 안국선 소설의 가치를 정치소설의 한국적 전개로 파악하고 「금수회의록」은 앞서 발표된 「연설법방」의 속편 혹은 통속적 적용이며, 이습식 우화의 방법이 사회 비판을 위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홍신선, “한국 근대문학이론형성과정에 관한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7)

송현호, “한국 근대소설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문성숙, “한국 근대소설론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1)

14) 백철·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p. 244.

15) 전광용, “한국 소설 발달사(하)”, 「한국문화사대계 V」, (고려대민족문화 연구소, 1967), pp. 1202-1205.

16) 이재선,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일조각, 1972), pp. 293-295.

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나>라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도입과 연설진행 방법의 합리성을 지적 흥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일제의 언론탄압이 가중됨에 따라 표면상 더욱 뻔을 수 없었고, 1909년 12월의 언론탄압에 의거 압수된 문헌에 「금수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⁷⁾ 이 책에서도 「경세종」에 대해서는 논급이 없다.

趙東一은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개화사상이나 사회비판의 주제를 작품의 전면에 걸쳐 적극적으로 역설하는 것들도 있다고 전제하고, 「自由鐘」, 「禽獸會議錄」, 「愛國婦人傳」, 「夢見諸葛亮」, 「꿈하늘」 등이 그러한 작품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은 엄격히 따져서 소설이 아니며, 「자유종」이나 「금수회의록」에서의 토론은 사건을 창조하거나 전개시키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소설에서의 대화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작품들은 교술문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장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⁸⁾ 그의 「한국문학통사·4」(1989)에서는 「경세종」도 「금수회의록」과 같은 동물우화 형식의 토론문으로 보고 있다.¹⁹⁾

尹明求는 작가의식 및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식을 중심으로 안국선에 대한 전기적 고찰과 함께 작품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상세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²⁰⁾

宋敏鎭는 「금수회의록」을 매우 파격적인 형태와 내용을 가진 특이한 일면을 보여주는 소설이라 하면서 ‘政治類小說’로 분류하였다. 김필수의 「경세종」은 개화기 한말의 순수 단행본소설 14종의 하나로 단순하

17) 김윤식·김현,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1973), pp.103-104.

18)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 출판부, 1973), p.179.

19) 조동일, 『한국 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9), pp.318-321.

20) 윤명구, “안국선 연구”, 『현대문학연구제8집』,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73)

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21)

세리가와 데쓰요(芹川哲世)는 안국선이 일본에 유학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을 다같이 일본의 명치시대 저널리스트였던 다지마 쇼지(田島象二)의 「人類攻撃禽獸國會」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종의 번안물로 보고 있다. 22)

印權煥은 세리가와가 「금수회의록」을 일본소설의 번안물로 보는 관점에 대항하여, 그 재래적 원천을 한국소설사에서 동물우화담의 사적 계보로 파악하였다. 23)

權寧珮은 안국선의 생애와 사회 활동 및 작품 세계의 성격을 개화기 지식인으로서 그의 현실 정치의식과 결부시켜 眺望하고 있다. 24)

洪一植은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은 동물을 등장시킨 특이한 우화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교화적 鑑戒主義 작품으로 인륜도덕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신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25)

朴泰尙은 「금수회의록」을 발생론적 생성요인과 전대소설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 소설의 통시적 계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소설의 유형적 특징을 전대소설과의 영향관계에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26)

21) 송민호, 『한국 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5), pp.151, 215-217.

22) 芹川哲世, “한일 개화기 정치소설의 비교연구”, 『현대문학연구 제15집』,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75), pp.64-81.

23) 인권환, “금수회의록의 재래적 원천에 대하여”, 『고대어문연구, 18·19합집』, (고려대 국문학과, 1977)

24) 권영민, “안국선의 생애와 작품세계”, 『관악어문연구 제2집』, (서울대, 1977)

-----,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안국선의 경우”,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6), pp.63-78.

25) 홍일식, 『한국 개화기의 문학사상 연구』, (열화당, 1980), pp.207-212.

26) 박태상,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연구” 『연세, 제16호』, (연세대학교, 1982)

趙神權은 「금수회의록」에 나타나는 대사회적 비판의식은 주로 기독교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국선을 기독교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타락된 인간의 윤리와 본성회복을 부르짖는 기독교적 이상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²⁷⁾

洪慶杓은 우화소설 「금수회의록」의 풍자의식을 내재적 표시와 외재적 표시를 통하여 고찰한 후, 초기소설의 사회적 성격과 「금수회의록」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세종」은 기독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당대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²⁸⁾

曺南鉉은 이인직의 「혈의 누」에 비한다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당시 개화기가 안고 있었던 위기의 병리적 국면을 잘 드러낸 것으로서, 소설의 미학적 측면에서는 이인직이 앞섰으나 작가정신의 측면에서는 안국선이 앞섰다고 보았다. 그래서 안국선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가치전도와 갈등의 현장으로 파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경세종」은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을 비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부정적 현실의 동인인 갈등의 심층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에까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⁹⁾

金永澤은 「금수회의록」을 풍자소설로 보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당대의 외세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고 있고, 형식면에서는 당시의 소설 형식의 파격이라고 보고 있다. 「경세종」은 「금수회의록」과 달리 꿈의 장치 없으며 그보다 더욱 짙게 기독교 색채를 띠고 있는데, 등장하는

27)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세대 출판부, 1983), p. 205.

28) 홍경표, 「한국 근대소설작가의식 연구」, (형설출판사, 1984), pp. 29-40.

29) 조남현, 「한국 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pp. 34-35.

동물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점차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⁰⁾

文聖淑은 「금수회의록」을 동물우화 형식을 계승·변형 발전시킨 유형이라 정의하고, 지금까지 '정치소설' 또는 '정치류소설'이라 규정해 오던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정치나 시국에 관한 관심과 주장보다 인간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관심 표명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성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계몽의식이 강한 작품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세종」은 「금수회의록」과 매우 유사한 작품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울어진 작품으로 보고 있다.³¹⁾

지금까지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했는 바, 부분적으로는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우화소설의 측면에서 「금수회의록」은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경세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위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두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시대·사상적 성격과 우화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작품분석을 통한 소설적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0) 김영택, 『한국 근대소설론』, (문지사, 1991), pp. 54-64.

31) 문성숙, 앞의 논문, pp. 96-97.

II. 理論的 背景

1. 自主自彊意識

안국선(1878-1926)이 「금수회의록」을 단행본[皇城書籍業組合]으로 출간한 때는 융희 2년(1908) 2월로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김필수(1872-1948)가 「경세종」을 광학서포(廣學書舖)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은 「금수회의록」보다 9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30일이었으며, 당시 작가는 30대 중반의 평양장로회신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다.

32) 이들 작가가 생존하여 활동하던 시대는 폐쇄적인 체제에서 개방사회로 나아가는 전환기였다. 비록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것이나 우리의 문호가 개방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급변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870년대의 개항기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의 시대상황을 통하여 이 두 작품이 생성된 시대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구자본주의의 침입에 따르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선왕조는 1876년 2월 일본의 메이지(明治)정부와 불명등 조약인 소위 '江華島條約'이라고 알려져 있는 '韓日修好條規'를 체결하였다. 우리의 개항은 종래의 폐쇄 체제였던 한국 사회가 개방 체제로 진입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준비없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외국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문제를

32) 전택부 외편, 『기독교대백과사전, 3권』, (기독교문사, 1981), p. 308.

안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이미 1866년의 丙寅洋擾와 1871년의 辛未洋擾를 무력으로 격퇴시키고 衛正斥邪를 국론으로 결정한 바 있었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나서 국방이 해이해지자 일본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개항을 강요하여 당시 민비파의 수구정부가 함포의 위협에 굴복하여, 서구에 비하면 여러 방면에서 보잘 것 없었던 일본에게 개항을 승인하고 말았다.³³⁾

일본은 나중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나라를 독점 지배하게 되었다. 1894년 한일양국동맹, 1904년 한일의정서에 의한 내정 간섭으로 시작하여 마침내는 제일차 한일협약에 의하여 고문정치를 시작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군사·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어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인 한일신협약에 의하여 차관정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군대를 해산했으며, 1909년 기유각서를 근거로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 8월 29일 韓日合邦을 통하여 이 땅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았다.³⁴⁾

이 과정에서 1896-98년 사이에 전개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은 甲午更張의 타율성과 俄館播遷 후의 제정 러시아 등 열강의 침략 정책에 대응하여 주로 외세에 편승한 집권층에 비판적인 재야의 개화파들이 주동이 된 구국개혁운동이었다. 이같은 결사체에 집결했던 개혁파들은 국제 세력균형의 결과 생긴 진공의 범위를 민족운동을 통하여 점차 확대해 가면서 시민적 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자주독립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을 직접 정치에 참여시키고 민권의 신장을 도모해야 하며, 국민이 나라의 방위도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자주

33)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4), pp. 21-23.

34)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86), pp. 339-370.

부강한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헌대의체제의 수립, 행정개혁, 재정개혁, 신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산업개발 및 자주적인 중립외교와 사회관습의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 결과로 이러한 개화사상은 도시 시민층과 청년층을 위시한 여러 계층의 민중과 결합되어 시민사회를 건설하고 열강의 침략 시도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중심사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이 기간에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를 신설하고 국민의 힘에 의하여 자주독립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사실이다. 당시의 개혁파들은 국왕이 專制權을 갖고 광산, 철도, 전기, 산림, 어장 등 귀중한 이권을 열강에게 양여하거나 침탈당하는 현상을 目睹하고는 나중에 열강의 협박으로 수구파들이 국권까지 열강에 넘겨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 하였다. 독립협회는 국회를 개설하여 국민의 참정을 실현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정의 주요 현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열강의 국권침탈에 대비하려 하였다. 당시의 열강의 침략은 국왕이나 몇몇 대신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적절한 대응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가 무력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바로 발표하지 못하고 숨기다가 나중에 이를 발표하자, 張志淵이 <皇城新聞>에 '是日也放聲大哭'의 논설을 게재하여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마침내는 의병이 꺾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만일 국회가 개설되어 있어서 을사조약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면 전국민이 봉기하여 반대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국회 설립과 개혁 내각의 수립, 그리고 민중의 단결에 의거한 민주적 자주독립국가와 시민사회를 건설하여 열강

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시도한 활동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박탈당하기 이전에 있어서 자주독립의 유지 수호를 위하여 노력한 우리 민족 최후의 운동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의의를 갖는 것은 개화 독립사상과 민중이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화사상이 민중의 생활 속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長期動態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 개화 독립사상과 민중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민중에 의하여 근대화운동이 전개되고 민족운동의 주체와 방향과 추진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대세에 합치되어 전개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2월에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체제적 과제의 하나였던 독립의 유지에 실패한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극된 한국인들은 광범위한 반성을 하게 되고 국권회복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민족의 국권회복운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의 양면에서 전개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의 국권회복을 위한 기본 전략은 첫째, 국내에서는 국민을 애국주의와 신지식으로 교육하고 계몽하며 사회의 각 부문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청소년을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 간부로 양성하여 내부 실력을 준비하고, 둘째는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며, 셋째는 중일전쟁이나 미일전쟁 또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는 기회가 오면 밖에서는 독립군이 국내로 진공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준비한 실력으로 총단결하여 봉기해서 내외의 호응을 얻어 일거에 일본 제국주의를 驅逐하고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몽운동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큰 성

과를 얻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미흡했으나, 총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각성과 역량의 증대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일제 통감부의 극심한 탄압에도 신교육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이후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모태가 되었다.

1870년대에서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개화사상은 역사적으로 3단계의 변천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1단계는 1870년대 개항과 동시에 개화사상이 유입되는 시기로 이 때는 개국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2단계인 1880년대는 국가부강의 사상으로 변천했으며, 마지막 3단계인 1890년대와 1900년대는 국가독립 및 민권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³⁵⁾ 이 중에서 특히 2단계의 국가부강의 사상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국가적으로는 학교설치령을 내리고, 외국유학을 통한 선진문명과 신기술 도입의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어 18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권의 위태롭다는 사실을 자각한 독립협회 중심의 개화파들은 신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자주독립사상의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안국선은 1895년 제1차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곳의 慶應義塾 보통과에서 수학한 후에 와세다(早稻田)대학의 전신인 동경전문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899년 귀국하였다. 그는 선구자적인 개화기 지식인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당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정치적인 자주독립을 구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학을 전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학 후 귀국해서는 독립협회의 활동에 가담했으며 학원과 언론을 통하여 정치학과 경제학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李商在, 兪星澹, 金貞植 등

35) 이광린, 앞의 책, p.19.

과 함께 독립협회에 관여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당했다. 감옥 속에서 선교사 아펜셀라와 뱅커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후 계속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일생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외아들인 必承(소설가 安懷南)을 교회에 데리고 다녔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³⁶⁾

김필수는 朴泳孝와 교분이 깊었던 관계 때문에 甲申政變이 삼일천하로 실패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일본의 코오베(神戸)로 잠시 망명하였다. 귀국 후에는 언더우드 목사의 추천으로 전주에서 선교사로 있던 레이놀즈의 어학 교사로 활동한 적도 있었다. 그후 상경하여 1903년에는 YMCA의 전신인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창립이사가 되었고, 30대에 뜻한 바 있어 신학을 배워 19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의 일생을 살았다. 특히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선임되어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장로회 총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기독신보>의 주필로서, 또한 YMCA의 지도자로서 언론활동과 강연을 통하여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또 1920년대 초에는 YMCA가 여러 애국시민 단체와 함께 금주·금연·절제를 골자로 하는 물산장려운동을 펼칠 때는 명강사로서 전국을 순회하였다³⁷⁾고 한다.

따라서 안국선과 김필수가 중추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개화의 3단계에 해당되며, 「금수회의록」과 「경세중」 또한 자주독립과 민권사상이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하던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G. L. Morgan은 '문학작품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역

36) 권영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안국선의 경우",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6), p. 63.

37) 전택부 외편, 앞의 사전, p. 308.

사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으로서 인류와 상관관계를 갖는 관념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³⁸⁾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시대적 상황과 사조를 포함하는 역사적 배경은 안국선의 많은 저술과 소설창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가 되고자 준비하던 김필수는 평신도인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을 읽고 이에 자극받아 그보다 더 강력하게 기독교사상을 담고 있는 「경세중」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금수회의록」과 「경세중」은 이와 같은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당시의 시대조류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2. 鑑戒主義와 悔改意志

「금수회의록」과 「경세중」의 사상적 배경 및 특성을 살펴 보면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관의 붕괴에 따른 도덕적 결함을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비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는 사악해진 인간 세계를 연설에 등장하는 여덟 종류의 동물과, 친목회에 참석한 열 일곱 종류의 동물을 통하여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덕목인 忠, 孝, 信, 義, 貞節 등의 도덕적 타락을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회개에 의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던 안국선과 김필수는 근면·인내·양선·온유·절제 등 기독교인의 생활신조를 작품 중에서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

38) 윤명구, 앞의 논문, p.19에서 재인용.

39) 오승균, "개화기소설에 미친 기독교 영향",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8), p. 69.

다. 굳이 구분한다면 「금수회의록」은 표면상으로는 자주적인 국권회복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비판의식이 두드러지며, 유교적 가치관이 가미된 기독교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경세종」은 표면상으로는 정치적인 비판의식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내용상으로는 성경적 알레고리에 의한 현실비판의식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다. 특히 묵사의 설교에 방불할 정도로 완전히 기독교사상에 傾倒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의 사상적 배경과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금수회의록」은 신소설 중에서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비교적 초기의 작품⁴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작가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하나님)을 창조주요, 우주의 대주재(大主宰)로 보고 있다. 천지만물을 조화로 만든 전능하고 거룩한 존재인 것이다. 나아가 모든 이치의 주인으로서 은덕을 베푸는 시혜자로 보고 있다. 즉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만물은 그 섭리와 이치 안에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의 인자한 은덕이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바탕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더 우리들이 거주하야 사는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잇던 거시 아니라 지극히 거룩
하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 께서 조화로 만드신 거시라 세계만물을 창조하신 조

40) 이재선의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에 의하면 ‘槃阿’라는 필명으로 <황성신문>에 1907년 8월에서 9월까지 연재된 「夢潮」를 신소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들고 있으며, 송민호의 「한국 개화기 소설의 사적 연구」에서는 1906년 <태극학보>에 실렸던 「多情多恨」을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최초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화주를 곳 하나님이라 하나니 일만리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외셔 세계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드려 각식물건이 세상에 싱기게 흐섯스니 이갓치 만드신 목덕은 그영광을 나타니여 모든 싱물로 하여곰 인조흔 은덕을 베프러 영원흔 행복을 받게하라 흠이라'41)

둘째로, 신을 무소부재(無所不在)하고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존재로 보고 있다. 곧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혜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을 속이는 일이나, 추한 일을 행하는 인간들에게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고 경고하고 있다. 아무 두려움없이 행하는 인간의 逸脫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상에 데일 더러운 거슨 쏙이라 하지마는 우리가 쏙을 늘썬 남이 다보고 알도록 원티는 검게 누고 검은 티는 희게 누어서 남을 속일 싱각은 하지안소 사롬들은 쏙보다 더 더러운 일을 만히 하지마는 혹 남의 눈에 보일가 남의 입에 오르 나릴가 겁을 내여 은밀이 흐되 무소부지 흐신 하나님은 몬져 아시고 계시오'42)

셋째로, 신을 정의와 공의에 입각한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를 중히 여기며 불의를 미워하고 죄악을 형벌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옛날에 대비시키면서 당대인들의 험악하고 흉포한 행태를 통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萬有人權도 부질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예 '종자를 없

41) 김윤식외편, 『신소설·번안(역)소설·2』, (아세아문화사, 1978), pp. 452-453. (이하에서는 '신소설·2, 앞의 책'으로 약칭함.)

42) 신소설·2, 앞의 책, p. 485.

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예언자들인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과 부합된다.

'넷째 사롬은 호랑의 가죽을 쓰고 도적질 하였스나 지금 사롬들은 겁주는 사롬의 겁줄을 쓰고 마암은 호랑의 마암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하니라 하나님은 지공무사하신 하나님이니 이것치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의게 대일 귀하고 신령하신 권리를 줄 짜답이 무엇시오 사롬으로 못된 일하는자의 종자를 업시는 거시 조홀줄 노 칭각 하옵니다' 43)

끝으로 신을 기독교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 폐회의 맨 끝부분을 보면 최종적으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이 금수보다 저급한 상태로 전락하여 惡行과 惡行을 다반사로 범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에 기초한 기독교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사롬이 찌러져서 짐생의 아리가 되고 짐생이 도로혀 사롬보다 상등이 되었스니 엇지하면 조홀고 예수씨의 말삼을 드르니 하느님이 아직도 사롬을 사랑하신다하니 사롬들이 악한 일을 만히 하였슬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잇는길이 잇다하얏스니 이 세상에 잇는 여러 형제즈리는 김히김히 생각하시오' 44)

또 이 작품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被造物로 인식하는 이른바 기독교

43) 신소설·2, 앞의 책, pp. 490-491.

44) 신소설·2, 앞의 책, pp. 496-497.

교적 인간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성서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피조물이란 점에서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대로 창조되었다는 특권 때문에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존엄하다는 것이다. 이 기록하고 존엄한 모습은 육체의 외형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과 도덕심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므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하더라도 인간이 존엄하며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초적으로는 인간이 기록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존재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며,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어 까마귀만큼도 효도할 줄 모르고(反哺之孝), 여우보다 더 간사하게 다른 사람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리며(狐假虎威), 견문이 좁다는 개구리보다도 자기 본분과 분수를 지킬 줄 모르고(井蛙語海),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콤하여 그럴 듯 하나 속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차고(口蜜腹劍), 창자없는 짓거리가 계보다도 더 심하며(無腸公子), 파리만큼도 자기의 동포를 사랑할 줄 모르고(營營之蠅), 호랑이보다도 더 탐욕스러우며(苛政而猛於虎), 부부간의 금슬이 깨어져서 부정한 행실은 원앙이 부끄러울 정도니(雙去雙來) 원래의 존엄한 형상은 고사하고 실제로는 날짐승이나 물고기, 들짐승보다도 그 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정과 불의로 인하여 금수보다도 더 치욕적인 죄를 지은 상태지만,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

나님이므로 인간들이 일단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관이 상당부분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교는 孔孟을 중심으로 하는 인륜 사상이며, 天, 地, 人의 三才가 그 핵심사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인간 이상의 초월자인 天에 대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문제삼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은 인간에 있다. 특히 유교에서의 中庸思想은 天道가 人道에 내재하며, 인간은 물질의 주인으로서 물질이 인간에게 지배되는 가치체계를 가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유교는 仁으로써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이념으로 삼고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⁴⁵⁾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유교적 윤리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세상은 인문이 결단나서 도덕도 업서지고 의리도 업서지고 험치도 업서지고 절기도 업서져서 사름마다 더럽고 흐린 풍랑에 빠지고 헤어나올 줄 몰나서 원 세상이 다 악혼고로 그르고 올흠을 분변치 못하야 악독하기로 유명한 「도척」이 갓흔 도척놈은 청련 빅일에 스마를 달너 왕궁 국도에 핑헝하되 사름이 보고 이상히 녀이지 아니하고 「안주」갓치 착흔 사름이 루항에 잇서서 혼 도시락 밥을 먹고 혼 표쥬박 물을 마시며 간난을 견디지 못하되 혼 사름도 불상히 녀이지 아니하니 슬프다 착흔 사름과 악흔 사름이 격구루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밧고엿도다」⁴⁶⁾

45) 이상은외, 『한국의 유학사상』, (삼성출판사, 1981), p. 11.

46) 신소설·2, 앞의 책, pp. 449-450.

참고로 盜賊은 중국 춘추시대의 몹시 흉악한 사람을 말하며, 顏子는 顏回라고도하는 중국 노나라의 매우 어진 선비로 공자의 수제자를 말함.

이것은 서언의 내용에 표현된 것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과 가치가 전도되어 도덕, 의리, 염치, 절개가 사라지고 사악한 풍조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 결과 정사(正邪)를 분별하지 못하며 선인과 악인, 충신과 역적이 뒤바뀐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또한 개회취지에 서도 불충과 불효, 동기간의 우애와 부부의 도리를 저버린 타락한 인간의 세태를 직접적으로 공박하고 있다.

개회취지를 통하여 금수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에서도 이 작품이 전통적인 유교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대일 사름된 자의 칙임을 의론하야 분명히 홀일, 데이 사름의 형위를 들어서 올코 그름을 의론홀 일, 데삼 지금 세상 사름 중에 인류 주격이 잇는 자와 업는 자를 도사 홀 일⁴⁷⁾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책임의식이 강한 인간, 둘째는 행동이 올바른 인간이며, 셋째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간이 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함으로써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 회의 안건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의 포괄적인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윤리관은 동양의 유교적 인생관에 중점을 두고 도덕적 생활의 타락을 질타하면서 기독교의 博愛思想을 개입시키고 있다. 또한 당대의 사회적 비리를 안국선은 이 작품을 통하여 우회하여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리현상의 만연도 결국은 인간의 몰도

47) 신소설·2, 앞의 책, pp. 455-456.

덕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 작가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살펴볼 때 이 작품은 기독교사상이 다분히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관에 윤색되어 있음⁴⁸⁾을 알 수 있다. 즉 안국선은 이 작품을 통하여 당대의 모순된 사회현실과 윤리도덕의 타락상에 대하여 전통적인 유교의 입장에서 공박하면서 인간 본연의 도덕성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개혁하고 국권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우선해서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세중」은 당대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여 세상을 깨우치고 인간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기독교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양(羊)회장의 친목회 취지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수회의록」보다 더욱 짙게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더욱 구체적이며 노골적인 기독교사상의 표현 방법으로서 「금수회의록」보다 더 많은 성구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성경의 인용도 창세기, 열왕기, 시편, 잠언, 이사야, 로마서 등 다양하다. 이 작품은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서 인간 사회의 추악상을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상을 담고 있는 羊회장의 취지 연설은 그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사의 설교의 일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더구나 이런 취지 연설을 담당하는 친목회장으로 많은 동물 가운데서 羊을 택했다는 것은 성경적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羊'⁴⁹⁾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작자의 이러한 발상 또한 이 소설의 사상적 배경과 특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48) 이인복, 『한국 문학과 기독교사상』, (우경사, 1987), pp. 25-26.

49) 대한성서공회편, 『신약성서』, (보진재, 1970), p. 143. (요한복음1장29절)

하고 있다. 羊회장의 취지 연설과 친목회에 참석한 각종 금수들의 발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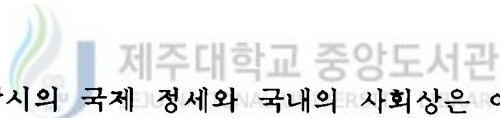
첫째로 기독교의 창조론과 원죄론을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직접 인용(창세기 1장--3장)하여 나타내고 있다. 각종 동물들이 서로 불화하며, 弱肉强食의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놓여진 근원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다음은 천지창조와 인류타락의 본원을 밝힌 부분이다. 금수와 곤충들은 아무 죄도 없었으나,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낙원에서 추방되고 자신들도 엉뚱하게 피해를 입어 서로 불목하는 원인을 '池魚之殃'의 고사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은 아무런 침략행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욕심[善惡果] 때문에 조국의 강토가 유린되고 식민지 형태로 전락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동안 텅디와 바다와 만물을 권능의 말씀 혼마티로 지어내실 때에 사롬을 몬져 지으신거시 아니라 금슈곤충을 다 지어내시고 우리를 다스릴자 허나를 조성하셨는티 슬흐다 더 아담이 주유 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슈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아담이 락원에서 쫓김을 당하고 온파쏘지 저쥬를 밧은거시 우리들의 탓이 아니오 다만 인종의 시조된 아담의 죄로 인 허야 우리쏘지 이긋치 되엿스니 성문에 불이나매 화가 그 못 고기의게 미쳤다허는 말이 우리들의게 당헌 일이 아니오닛가' 50)

50) 신소설·2, 앞의 책, pp.516-517.

둘째, 四海同胞主義에 입각하여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보편적인 인류애가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 내용은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평화가 넘쳐 흐르는 이상세계를 보여주는 성경구절(이사야 11장)이다. 당시 약육강식의 논리가 확연히 드러나던 세계정세에 대한 비판으로 평화공존의 간절한 소망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당시 진화론적 약육강식의 논리는 침략주의를 표방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취했던 중요한 노선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마수에 대항하는 경계의 심리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런고로 예수 강성전 칠십소십년뒤에 이사야라 하는 선지자의게 하느님의서 목시로 그르치시기를 그새에 일희가 어린 양으로 더브러 거르고 표범이 어린 염소로 더브러 누울거시오 송아지와 어린 스자와 살진 짐승이 다 흠의 잇스리니 어린 으희라도 쓰올니라 소와 곰이 흠의먹고 그 삭기가 흠의 업드리고 스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젓먹는 어린 으희가 독스의 구멍에서 작란하고 젓센 어린으희가 독스의 굴에 손을 너흐리라.'⁵¹⁾



아울러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국내의 사회상은 어떠하였는지 다음의 시편을 인용한 羊회장의 연설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목사 후보생이던 김필수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서인 이사야, 묵시문학인 시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두루 인용하면서 설교조의 연설로 친목회의 취지 설명을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편에 그르치기를 목구멍은 열닌 무덤고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설은

51) 신소설·2, 앞의 책, pp. 517-518.

독스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겨주와 악담이 가득하고 그 발은 사람의 피 흘니는티 설
은지라 멸망함과 고성이 그 길에 잇서 평안한 길을 아지못하고 더의 눈압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업는지라' 52)

셋째, 특히 이 소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
도 오히려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앙과 비성서적인 태도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점이다. 성경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여 성수주일
에 등한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강
한 비판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사악하게
잘못되어진 부분까지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기독교는 1907년 대부흥운동
을 계기로 괄목할만한 量的 成長(교회 숫자와 교인의 증가)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교인들의 質的 成長
의 문제가 당면 과제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다수 교인들이 신앙을 갖
게된 동기가 종교적인 목적이기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였다⁵³⁾는
데 문제가 있었다.



'더 소위 리치를 안다고 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의 일을 잠깐 말노흐자면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고 형실노는 마귀를 쫓아가는도다 엿시 동안에는
허탄한 이야기와 낮잠이나 자고 담뱃나 먹는 중에서 세월을 다 보내다가 다행되는 날
에는 마지못하야 회당에 가기는 같지라도 꾸벅꾸벅 조지아니흐면 집에 도라와서는 늦
부즈런이 나서 은근이 일흐노라고 쥬일을 온전히 직히지 아니흐니 엿지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잇스리오' 54)

52) 신소설·2, 앞의 책, p. 518.

53)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1980), pp. 63-74.

「경세중」의 사상적 배경을 요약하면, 앞서 살핀 「금수회의록」보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비판의식이나 유교적인 요소는 훨씬 약화되어 있으나 기독교적인 요소는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이 소설 중에서 성서에 나타난 내용을 원전 그대로 인용하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된다는 사실과, '연회석의 차서'에서 다과를 나누기 전에 羊 회장의 감사 기도와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헤어지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친목회의 회장이 성경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기도와 찬미가 이어지는 이 소설은 패역한 세대에 대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이 「금수회의록」과 대비되는 것은 소설 속에서 기독교인들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회개의지)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이 소설이 철두철미하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창작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 寓話의 概念과 特性

일반적으로 우화라 하면 동물우화의 뜻을 줄여서 이르는 것이다. 동물우화는 동물의 행동을 통하여 도덕적 교훈을 교시하는 우화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광의로 볼 때 우화는 우언으로 된 모든 이야기⁵⁴⁾가 그 외연이 된다. 즉 작가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지식을 假託을 통하여 표현, 전달하려는 이야기는 모두 우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동

54) 신소설·2, 앞의 책, pp.519-510.

55) 정확성, 「우화소설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2), p.3.

물우화라고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말할 때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어떤 유형적인 인간행위를 예시하여 간단한 교훈적 명제를 훈시해 주는 단편담을 말한다.

보통 동물우화는 도덕적 교훈을 본의로 하는 설화의 한 형태로서 자연발생적인 설화가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이며 교훈을 제1로 하고 흥미를 제2로 하고 있다.⁵⁶⁾ 따라서 우화는 비교적 단문으로서 풍자적 수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동물우화에서의 사건의 전개와 대화가 동물들의 세계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것은 사람을 동물로 바꾸어 놓은 것일 뿐이며, 그 의도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인간사회를 우의와 풍자와 해학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물우화는 동물로 의인화된 다양한 현실적 인물을 등장시켜 인간에 내재된 약점을 교정하고, 나아가서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당대의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하여 신랄하게 풍자하는 독특한 문학양식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의 경우도 연설에 등장하는 동물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에 얽힌 윤리·도덕적 관심사를 토론하면서, 관습과 제도 또는 특정한 인간 유형이나 행동양식을 비판하며 고발하고 있다.

통설에 따르면 이러한 동물우화 형식은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의 노예 출신인 이솝(Aesop)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형식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지니게 되는 약점과 모순의 문제를 신분의 제약상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인간을 동물로 대치하여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윤리·도덕적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양식이었다.

56)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78), p.167.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외부적인 제약 이외에도 작가의 의도적인 창작 기법의 하나로 변형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인간의 윤리·도덕적 모순과 결함이 심각하여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하된 표현이 가능한 동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의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하는 두 작품의 경우에서 동물우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작가들의 신분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화는 본질적으로 교훈적이며 경구적인 도덕적 설득이라는 이차적인 뜻을 이면에 숨기고 있으므로 알레고리(allegory)⁵⁷⁾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화형식의 소설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우화란 작가의 주관적 사상이나 지식을 가탁(假託, vehicle)에 의하여 제시하는 이야기이다.

둘째, 가탁의 방법으로는 의인(擬人), 비유(比喩), 상징(象徵), 은유(隱喩) 등이 있으며, 인간의 행위를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셋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은 인간의 전형을 의인화한 것이며, 행동은 다른 의미있는 행동의 상징이다.

넷째, 우화의 목적은 교시적 비판적 기능에 있으며 풍자와 아이러니를 동반한다.⁵⁸⁾

57) 이상섭편,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p.193에 의하면 알레고리는 확장된 비유로서 구체적인 심상의 전개와 동시에 추상적인 의미의 층이 그 배후에 동반되는 것이 의식되도록 된 작품을 말하며 표면적으로는 인물과 행위와 배경 등 통상적인 이야기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정신적, 도덕적 또는 역사적 의미가 전개되는 뚜렷한 1:1의 이중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58) 윤명구, 『한국 개화기소설의 이해』, (인하대 출판부, 1986), pp.151-152.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우화는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설계된 이야기이며, 비유법에 의하여 풍자적으로 인간행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교시하려는 서사문학의 일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소설창작의 수법으로 사용한 소설을 우화소설이라 한다.

아울러 동물우화를 통한 풍자는 도덕성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의 풍자는 무엇이 풍자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풍자의 주제뿐만 아니라, 풍자에 의해서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논급하고자 하는 두 작품의 풍자대상은 작품의 외부세계인 현실사회의 불합리성과 인간의 惡行 및 戾行이다. 또한 풍자의 방법에서도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점과, 등장 동물들이 토론의 형식을 통하여 인간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물을 의인화하여 풍자하는 표현방법은 멀리 인도의 '본생설화', 고대 중국 장자의 '우언'과 명대의 '삼우전', 프랑스의 '고양이 이야기', 일본의 '나는 고양이로다', 영국의 '동물농장' 등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뿌리내려진 우의적 서사의 대표적인 형태⁵⁹⁾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사기 김유신조에 나오는 '龜兎說話'를 비롯하여 16세기 초 「鰲眠楯」 소재의 '犬足受賜', '老鼠竊飯', '鈴貓乘馬', 「旬五志」의 '두더지의 혼인', 「奇聞」 소재의 '虎死狐計' 등의 동물우화와 고려와 이조의 動物擬人假傳⁶⁰⁾ 등에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물의인이

59) 김재환, 앞의 논문, pp.3-4.

60) 고려의 대표적인 동물의인가전은 이규보의 「청강사자현부전」, 이윤보의 「무장공자전」을 들 수 있고, 이조 때는 성간의 「용부전」, 권필의 「각색전」, 황현의 「금의공자전」, 유본학의 「오원전」 등이 있다.

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해학과 야유에서 출발하여 냉엄한 현실적인 문제로 확대 발전시켜 인생의 예지와 사회정의를 묵시적으로 나타낸 우의와 풍자의 동물우화와 동물의인가전은 나중에 임진·병자의 양란을 겪은 후에 「토끼전」, 「두껍전」, 「장끼전」, 「호질」과 같은 동물우화소설로 발전하는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이조 후기의 동물우화소설은 귀족소설, 영웅소설의 정신에 반대하여 이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갖고 현실생활의 再現과 模寫를 풍자를 통하여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우선하는 소설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은 양반문학 중심의 굴레를 벗고 평민문학의 시대를 열어 고대소설의 결실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사회가 혼란하고 正政法을 쓰기 어려운 시대에는 예나 오늘날이나 해학이 성하고 풍자가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설이 현실비판적인 문제를 주된 관심으로 갖는 경우에는 구전설화나 민담으로 오랜 역사적 내력을 갖고 있으며 겉으로는 관습화된 동물의 성격을 드러내지만 인간문제를 다루는 것을 속뜻으로 삼아, 허위를 풍자하고 진실을 깨우치는 특징을 가진 동물우화를 적극 활용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⁶¹⁾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물우화의 묘미는 동물이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비롯되는 골계에 있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태도에 근거를 두고 골계를 지향하는 해학(humour), 아이러니(irony), 풍자(satire), 기지(wit) 등은 동물우화소설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상의 특징이다.

동물우화가 갖는 보편성과 우화의 아이러니를 통하여 동물우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우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

6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pp. 83-95.

다는 것은 동물을 통해 그려지는 허구세계 속의 인물과 사건이 현실세계의 그것에 보편적인 대응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물로 表象되는 인물을 전형(유형, type)으로 볼 수 있다. 동물의 가면이 포괄하는 유형은 직업, 연령, 성, 계급 등등의 사회적 전형일 수도 있으며, 이기심, 태만, 우둔, 간교, 경박, 허영심, 등등의 인간 본성의 제유형일 수도 있다. 즉 동물이 갖는 속성들은 현실의 객관적 인식과 분석을 통해 추상화된 인간의 전형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화에서 인물의 개념이 이렇게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예시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전형성은 지극히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다. 개구리의 속성을 나타내는 '井蛙語海'는 많은 인간이 그와 같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와 같은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일련의 사건(행동)은 유형적인 인간의 행위원리를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까마귀로부터 '反哺之孝'를 배우고 송죽으로부터 '忠節'을 배운다. 이것은 물론 인간 자신의 감정이입에 지나지 않으며, 우화의 발상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화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큼 덕성이 뛰어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지성이나 덕성이 모자란 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적 결함과 윤리적 결함을 지적해 주는 역할을 통하여 인간을 교훈하는 구실을 하므로 이러한 주인공 설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우화는 아이러니⁶²⁾를 그 구성원리로 삼고 있다. 일상적인 인간이 가진 그릇된 부조리한 본

62) 이상섭편, 앞의 사전, p.188에 의하면 아이러니는 겉으로 들어난 말과 실질적인 의미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결과를 말하며, 말의 아이러니와 극적인 아이러니로 구분하고 있다.

성이나 환상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화가 갖는 기본적인 속성이
다. 동물우화에서 동물이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극적인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많은 동물우화에서 이러한 아이러니는 풍자를 지향하고 있다. 풍자
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나 외부현실에 대한 무
지와 맹목이 전제된다. 그리고 동물의 속성으로 대표되는 비천하고 왜
소한 이미지는 풍자적인 회화의 방편으로 유용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교훈적인 우화가 풍자와 결탁하는 것은 성실을 가르치기 위해 태만을,
신중을 교훈하기 위해 경박을, 겸허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부조리로 돌려 비난하는 아이러니의 수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
으로 이것은 태만하고, 경박하며, 이기적인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잠재하고 있는 태만, 경박,
이기적인 욕망에 대하여 반성하게 만든다.

「금수회의록」과 「경세중」에서 풍자적인 알레고리로 설정되어 이 작
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그들이 금수로서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합리화
시키고 자기 위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간을 비속화시키
고, 인간에 가해진 신랄한 조소와 비난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어조는 과장, 폭로, 조소, 통매 등이다. 「금수회의록」에 등장하는 동
물들은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게, 파리, 호랑이, 원앙 등이고,
「경세중」에는 호랑이, 양, 사슴, 원숭이, 다람쥐, 나귀, 캥거루, 고슴
도치, 박쥐, 까마귀, 황계, 공작, 울빼미, 제비, 개미, 나비, 자벌레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금수들은 인간처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종류의 인간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개
별적인 작품분석을 통하여 동물우화소설로서의 두 작품이 갖는 특징과
성경적 알레고리에 의한 현실 비판의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III. 動物寓話小説의 特徵

1. 아이러니와 價値顛倒

「금수회의록」은 일인칭 관찰자인 <나>가 사악해진 인류사회를 늘 근심하여 성현들의 글을 읽다가 꿈을 꾸는데, 여러 금수들이 모여서 인간을 비판하는 데에도 한 마디의 변명이나 반박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들의 연설로 일관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꿈을 통하여 환상적인 동물의 세계로 이입되고 있는 것은 과거 몽유록계 소설에서 꿈의 형식을 통하여 선계(仙界)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꿈은 현실과 동물 세계를 연결하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허구성을 동반하고 있다.⁶³⁾ 또한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의 액자 형태⁶⁴⁾를 이루고 있다. 도입 액자와 종결 액자가 있으며, 동물들의 발언 내용은 내부소설에 해당된다. 이 작품에서 도입 액자는 도덕의 타락을 개탄하던 <나>가 꿈 속에서 금수회의소를 발견하는 것이며, 종결 액자는 화자인 작가가 개입하여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어떤 동물인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회장의 개회취지와 까마귀부터 원

63) 이 작품을 전형적인 몽유록계 소설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꿈으로 이입되는 入夢과정은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몽유과정과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覺夢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불완전한 몽유록 형태로 볼 수 있다.

64) 안성수, “한국 근대소설의 플롯시학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논문』, (교육부, 1992), pp.17-18에 의하면 이 작품은 도입액자와 종결액자를 이중 폐쇄구조로 장치하고, 내부 이야기가 교차 배열된 삼입액자의 3중 액자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까지 차례로 연설하는 내용은 내부소설에 해당한다. 여기서 도입 액자는 문제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종결액자는 의미수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소설은 그 가운데 삽입된 액자의 주체인 <나>가 내부 이야기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65) 이와 같이 몽유록계 형식과 액자구조를 통한 동물우화 소설의 창작 동기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정신을 충분히 담기에 가장 이상적인 문학형식이라는 인식과, 1907년 7월 제정 공포된 광무신문지법의 제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정신의 반영도가 가장 큰 서사장르가 곧 액자구조의 몽유록계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동물이 인간처럼 말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이 아이러니는 작가의 지적 산물로서 이 소설의 작자는 의식적으로 이런 아이러니를 이 작품의 구성원리⁶⁶⁾로 삼고 있다. 우화의 구조적인 특징이 아이러니에 있다고 볼 때, 이 작품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독자의 이성에게 접근시켜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유인력을 제공하고 있어서, 작품 속에 들어나 있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오히려 인간사회의 모순과 이율배반성을 동물들의 직접적인 발언 형식으로 과장, 폭로, 야유, 조소, 통매(痛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풍자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서언과 개회취지 및 폐회를 제외하고는 여덟 종류의 동물들에 의한 여덟 개의 연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소제목을 갖고 있다. 이 소제목은 모두 하나의 의미 요소로서 등장 동물과 알레고리를 형성하여 각각 그들이 표상하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

65) 안성수, 앞의 논문, p.18.

66) 윤명구, 앞의 논문, pp.32-33.

들은 '까마귀-反哺之孝', '여우-狐假虎威', '개구리-井蛙語海', '벌-口蜜腹劍', '계-無腸公子', '파리-營營之極', '호랑이-苛政而猛於虎', '원앙-雙去雙來'이다. 이러한 등장 동물과 의미 사이의 1:1의 이념적인 대응관계는 알레고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된다. 즉 각 의미는 추상적인 것이나, 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는 구체적인 동물이다. 이러한 동물들의 습성에서 연유된 의미의 추상성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불합리성과 인간의 愚行 및 惡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소재목의 발상은 옛 중국의 고사성어와 전래적인 속담화된 관용어에 연원을 두고 있다.⁶⁷⁾ 이 고사성어와 속담이 모두 동물의 寓言이며, 사람의 성격을 추상화하여 동물에 假託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석에서 까마귀는 그에게 가해진 凶鳥로서의 이미지를 갱신하기 위해 잡다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反哺의 孝를 들어 인간을 痛罵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 사회의 사회적 변인으로서 윤리체제의 붕괴와 전도된 윤리가치에 대한 진위를 묻는 교훈적인 알레고리가 놓여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시에 아이러니로서 까마귀와 인간의 가치전도에 대한 풍자적 알레고리가 암시되어 있다.

'또 우리는 아침에 일찍 히쓰기 전에 집을 썰어서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야 부모 봉양도하고 나무가지를 물어다가 집도 짓고 곡식에 해되는 버러지도 잡아서 하나님 뜻을 밋들다가 저녁이 되면 반다시 너 집으로 도라가되..... 사

67) 『辭源』에 의하면, 위 고사성어와 속담의 근원은 반포지효는 『本草綱目』, 호가호위는 『戰國策』, 정와어해는 『後漢書馬援傳』, 구밀복검은 당나라 李林甫의 고사에서, 무장공자는 『拘朴子登涉』, 영영지극은 『詩經』, 가정이 맹어호는 『禮記』를 각기 출처로 하고 있다.

림들은 점심 썬제지 잡아져서 잠을자고 혼번 집을 썬나서 나가면 혹은 험잡질하기 혹은 술장보기 혹은 계집의 집뒤지기 혹은 노름하기 세월이 가는줄을 모르고 썬단이는 사름들이 엇지 우리 가마귀의 족속만 흐리오'68)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러니컬한 풍자로서 인간의 타성과 속물근성, 그리고 무책임성이 불효와 함께 폭로되고 있다. 당시의 사회를 지탱하고 또 과거 전통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체계인 '孝'가 가장 흥측하다는 까마귀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는 아이러니컬한 알레고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제이석은 여우가 요망스럽고 간사하다는 표상을 변호하면서 인간을 흑독하게 공격하고 인간과 여우의 위치를 전도시키고 있다.

'지금 세상 사름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위엄을 빌어야 훌터인티 외국의 세력을 빌어 의퇴야 몸을 보전하고 벼살을 엇어혀하며 타국 사름을 부동야 제나라를 망하고 제 동포를 압박하니 그거시 우리 여호보다 나흔 일이오 결단코 우리 여호만 못흔 물건들이라 후읍니다(손벽소리 텃디진동) 썬 나라로 말홀지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어서 남의 나라를 위협야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안당이 칼이나 룡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물을 탈취하고 부너를 겁탈하흔 거시나 다름 거시 무엇 잇소'69)

여기서는 여우가 등장하여 정말로 요망하고 간사스러운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특히 외세를 등에 업고 일신의 영달만을 도모하면서 그들과 야합하는 정부 관리들과 일제의 무력

68) 신소설·2, 앞의 책, pp.461-462.

69) 신소설·2, 앞의 책, pp.464-465.

침략행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여우는 생명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부득불 호랑이의 위엄을 빌었지만, 사람들은 강력한 외세의 힘을 덧입어 몸을 보전하고 벼슬을 얻으려 하며, 그들에 符同하여 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제 동포를 억압하는 우둔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한 나라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한당이 칼이나 옥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 발상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1909년 2월 일제가 제정한 출판법에 의하여 이 작품이 금서 처분을 받은 것⁷⁰⁾도 이와 같은 표현이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

제삼석은 우물안의 개구리라 불리우는 좁은 소견을 가진 개구리가 바다에 대하여 말하겠다는 식의 구성으로 인간의 무지와 오만을 비난하면서, 무능과 무사안일에 젖은 고관대작을 풍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만한 마음이 많아서 자기들이 천하에서 제일이며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제 나라의 형편도 모르면서 큰소리만 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면 무조건 아첨하고, 외국 문물은 모두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리는 자주성이 결여된 사이비 개화꾼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양 성인 공주씨서 말삼하시기를 아는 거슨 안다하고 이지못하는 거슨 이지못한 다하는 거시 정말 아는 거시라 하섯스니 저희들이 천박한 지식으로 남을 속이기를 능스도 알고 련하 만스를 모도 아는 테하니 우리는 이갓치 거짓말은 하지 아니호오 사롭이한 거슨 하나님의 리치를 이지못하고 악한 일만 만히하니 그대도 들 수가 업스니

70) 최민지외,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pp. 430-443.

추후는 사롭이라 후는 명칭을 주지 마는 거시 대단히 옳은 줄노 생각호오'71)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공자의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정직하게 분수를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사석은 벌의 근면한 점과 협동하는 모습을 옹호하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성을 폭로하고 있다. 인간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점과 俗惡하고 이기적인 침탈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또 우리의 입은 항상 꿀만 잇스되 사롭의 입은 변화가 무쌍호야 꿀갓치 단 재도 잇고 고초갓치 밋은 재도 잇고 칼갓치 날카러운 재도 잇고 비상갓치 독호 재도 잇서 맛 뒤호엿을 재에는 꿀을 들어보는 것갓치 달게 말호다가 도라서면 흥보고 육호고 노여호고 악담호며 도와라고 지낼 재에는 재소곰 향아리갓치 고소호고 맛있게 슈작호다가 조곰만 미흡호 일이 잇스면 죽일놈 살닐놈호며 무성포가 잇스면 곳 노아죽이 라호니 그런 악독호 거시 어디 또 잇스리오'72)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입에는 달콤한 꿀을 갖고 있으면서 배에는 무서운 침을 지니고 있는 것이 벌의 속성이라면, 이것은 또한 위선적이며 이중인격적인 인간에 그대로 대응되면서 表裏不同한 인간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오석은 무장공자인 계의 우화이다. 일제의 침탈에 대한 허약성이 폭로되어 있으며, 인간들이 창자없는 계보다 못하다는 야유와 조소가 담긴 내용으로 민족의 허약성과 음란하고 속된 현실의 타락상을 심하

71) 신소설·2, 앞의 책, pp. 473-474.

72) 신소설·2, 앞의 책, p. 476.

게 힐책하고 있다.

'만편 경륜이 님군 속일 싱각 백성 잡아먹을 싱각 나라 파리먹을 싱각밧게 아모 싱각업소 이갓치 썩고 더럽고 쫘만 드러서 구린니가 물큰물큰나는 창자는 우리의 업는 거시 도로혀 낫소 또 육을 보아도 성닐 즐도 모르고 조흔 일을 보아도 깃버홀 즐 모르고 쫘노릇 흐기만 도케녁이고 달게녁이며 관리의 무례흔 압박을 당하여도 조유를 차질 싱각이 도모지 업스니 이 거시 창조잇는 사롬들이라 흐겟소' 73)

위의 내용은 사람들이 게를 무장공자라고 유식하게 표현하여 창자없는 동물이라 놀리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창자가 썩고 문드러져서 그 더럽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적 자아의 각성이라는 민족주의의 지향에 관한 시대적 관심과 무기력하게 노예 근성으로 전락된 당시의 지식인의 궤절과 무능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배계급의 억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는 자주성이 부족한 민중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제육석은 미미하고 저급한 동물인 파리의 우화이다. 옛 중국의 시경을 주해한 詩傳에 나오는 파리에 관한 고사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 빗대면서 인간의 간악성에 대하여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다.

'사롬들이 우리 파리를 가라쳐 말하기를 파리는 간사흔 소인이라 하니 뒤져 사롬이라 흐는 것들은 저의 흥은 살피지 못하고 다만 남의 말은 잘흐는 것들이오 간사흔 소인의 성품과 톱도를 가진 것들은 사롬들이오 우리는 결단코 소인의 성품과 톱도를 가

73) 신소설·2, 앞의 책, pp. 479-480.

진거시 아니오' 74)

제철석에서는 호랑이가 인간의 잔학성과 탐관패직, 수탈행위 등을 풍자하고 있다. 옛날 중국의 고사인 苛政而猛於虎라는 말을 빌어서 의리를 배신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비정한 인간사회를 비난하고 있다.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의게 비하해보면 몇만키가 될는지 알수업소 또 우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더티도 하늘님이 만드러 주신 발톱과 니빨노 하늘님의 뜻 슬밧아 텃성의 힘위를 힘힐 쏘이어놀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하야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비화셔 사름의 도리에 유익헌 올흔 일에 쓰는 거슨 별노업고 각식 병괴를 발명하야 군함이니 티포니 총이니 탄환이니 화약이니 칼이니 활이니 호는 동물을 만드러서 지물을 무한이 내바리고 사름을 무수히 죽여서 나라를 만들 썩에 만반경륜은 다 난을 해하려는 무옴 쏘이라' 7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재물을 약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풍자하고 있으며, 포악한 관리는 호랑이보다도 몇 배나 더 무섭게 많은 사람을 착취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팔석은 원앙새의 話順으로 부부윤리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일부다처제를 음란성의 대표적 보기로 매도하고 있다. 아울러 바람직한 부부관과 부부간의 애정을 원앙에 비유하여 설교조로 훈계하고 있다.

'무론 남녀호고 두 사름을 두던지 섬기는 거슨 올치 아니호거놀 지금 세상 사름들

74) 신소설·2, 앞의 책, p. 483.

75) 신소설·2, 앞의 책, p. 488.

은 괴악하고 음란하고 박정하야 길가에 혼가지 버들을 썩기 위하야 백년 히로히라던
사롬을 니저바리고 동산에 혼송이 솟보기 위하야 조강지처를 니쫓치며 남편이 병이
들어 누엇는듯 의원과 간통하는 일도 있고 복을빌어 불공한다 가탁하고 증서방하는
일도 있고 남편죽어 사흘이 못되야 셔방히갈 쥬선하는 일도 잇스니 사롬들은 계집이
나 사나히나 인정도 업고 의리도 업고 다만 음란한 생각 쏨이라 홀 수 밧게 업소'76)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폐습인 불륜이나 간통, 축첩
등을 비판한 것이지만, 당시의 중심적인 근대지향의 표적이었던 자유
연애를 고취시켰던 다른 신소설과는 그 지향이 다를 뿐 아니라 수절이
라는 전통적인 윤리규범을 옹호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 작품은 인간이 동물의 입을 통하여 인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
에 이러한 비유의 방식은 처음부터 풍자인 것이다. 이러한 풍자는 일
차적으로 작중화자인 동물들이 인간의 측면에서 표상화되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일방적이지만
극적방식의 담화형태로 구성된 소설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대화에서,
혹은 등장 장면의 묘사에서 풍자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며, 보다
직접적인 풍자 대상인 인간은 이러한 동물들의 풍자적 표상과 관련되
어 풍자되고 있다.

또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동물들이 한결같이 <우리>라는 인칭을 쓰
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풍자의 대상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사람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풍자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알
수 있다.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동물들은 각각 그들 자신에게 가
해지고 있는 인간들의 비난이나 또 이전까지 비하된 여러 가지 표상을

76) 신소설·2, 앞의 책, pp. 492-493.

반박하고 갖가지 논리를 들어 자기구제를 시도한 후에 그에 대조되는 조건을 제시하여 <사람들>을 힐책하며 비판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종의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표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자기표상을 내걸고 그것을 변호하며 합리화하고 있다. 오직 인간만이 독점하고 있는 가치체계라고 볼 수 있는 효도, 분수, 정직, 우정, 의리, 인륜, 화합 등이 동물들의 자기옹호의 표상으로 전이되고, 그 반대로 본래 동물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인 흑심, 간사, 좁은 소견, 왜소함, 우둔, 잔인성 등이 인간의 표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표상과 인간에 대한 비판적 공격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77)

자기옹호의 표상	본래의 표상	비판적 공격내용
까마귀 --- 孝道	黑心, 凶鳥	悖倫, 어리석음
여우 ----- 守分	奸邪, 狡猾性	侵奪, 偽善
게구리 --- 正直	微物, 좁은所見	傲慢性, 腐敗相
벌 ----- 勤勉	勤勉, 協同團結	懶怠와 인간의 속된性情
파리 ----- 友情	不潔, 倭小함	奸物, 소인의 性品
게 ---- 率直性	愚鈍하고 못남	行惡, 無力性, 卑怯性
호랑이 --- 義理	威嚴, 殘忍性	五政, 腐敗, 貪官, 汚職
원앙 ----- 節介	多情, 和合	悖倫, 墾節, 奢妄

이와 같은 풍자의식이 인간과 동물의 가치를 전도시키면서 끝내는 인간의 금수화를 통하여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음을

77) 홍경표, 앞의 책, p.224와 김영택, 앞의 책, P.64참조.

알 수 있다. 이 작품 말미의 폐회 부분에서 금수회의를 지켜보는 <나>가 한탄하는 모습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여러 증상의 연설을 썩 나는 사람을 위하여 변명 연설을 허리라 하고 몇번 심각하야 본즉 무슨말노 변명할 수가 업고 반타를 허려허나 현하지변을 가져드리도 쓸타가 업도다 사람이 찌러져서 증생의 아리가 되고 증생이 도로혀 사람보다 상등이 되얏스니 엇지하면 조홀고’ 78)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풍자 동기를 여러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생래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전성이거나 폭악성 혹은 사악한 성정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티브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당대 현실상황의 여러 가지 악덕이나 愚行, 그리고 사회적인 불공평성과 계층사회의 모순이나 비리, 전근대적인 윤리체제의 갑작스런 붕괴 등 보다 현실적 자각이 앞선 비판의식이 이와 같은 모티브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비판이던지 당시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이던지 간에 인간은 악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악덕에 관해서도 두 가지의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악덕이란 인간의 천성이기 때문에 집단사회의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중요하고 경멸하며 조소를 퍼붓는 공격적인 비판의 측면과, 다른 하나는 매우 낙천적인 풍자태도로서 악덕을 본래의 생득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인 병인으로 봐서 이러한 약점과 무지를 교훈적으로 풍자

78) 신소설·2, 앞의 책, p.496.

하고 경고하여 수정하려는 일종의 교훈적인 풍자태도로 보는 측면이
다.

이 작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성정으로서 패악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과, 악덕이 생래적이므로 인간의 집단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함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작품에 드러나는 풍자의식의 외현적 표시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현실이 갖고 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특
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밖에 없었던 계층간의 불공평성, 특권계
급의 부패상과 비리성,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본 전통적인 윤리가치
의 갑작스런 붕괴, 인간성의 해체, 기회주의적이며 위선적인 태도 등
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구제하고 수정해야
겠다는 사회개조 의식이 작품 속에 내재적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볼 수
도 있다. 이러한 집합적인 인간에 대한 풍자는 짐승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중요감이 경멸이나 조롱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이것은
인간을 분개하게 하며, 인간사회의 위선적인 기존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제반 사회현상이던 정치와 윤리도덕의 실상은 작가로 하여금
침묵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시정하고 민중을 각성시키
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운은 이미 기울어 확
대일로에 있던 일제의 내정간섭과 경찰권의 강화 아래서 별다른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완곡하며 간접적인 표현수단으로 동물우화의 기법
에 가탁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런 연유로 강렬한 주제의식이 동
물들의 연설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순화되지 못한 채 과잉 노출된 일면
을 간과할 수 없다.

우화적 풍자소설로서 이 작품의 특징은 당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한 시대적 산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지나치게 강렬한 계몽적이

며 교훈적인 성격으로 미루어 연설 일변도의 작가의식의 해설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와 같이 강한 사회 비판의식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통감정치 체제하에서 용납될 수 없어서 우화의 형식을 택하였다고 생각된다.

2. 諷刺와 人類警醒

「경세종」의 구성은 꿈 이야기가 아니라 유산객들이 옛보는 가운데 산 속의 금수와 곤충들이 모여 친목회를 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금수회의록」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목록이라는 이름 밑에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유산객들이 회합, 제2장은 금수 곤충들이 친목회 개최, 제3장은 羊 회장의 취지와 설명, 제4장은 연회석의 차서로서 1차 사슴에서부터 14차 호랑이까지 열 네 종류의 동물들의 발언 내용, 제5장은 폐회, 제6장은 촬영순이다.

이 작품도 「금수회의록」과 같이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의 액자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도입 액자는 한 사람이 산에 놀러 갔다가 유산객들을 만나서 함께 금수 곤충들이 친목회 광경을 옛보는 것이며, 종결 액자는 작품 말미에 작가가 개입하여 '한편에 숨어 앉았던 저 사람들의 귀가 열렸는지……' 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羊 회장의 취지 설명과 사슴부터 호랑이까지 열 네 종류의 연설 내용은 내부 소설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실제 친목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물은 모두 열 일곱 종류이나 다과위원으로 등장하는 다람쥐와 시간위원인 황계를 제외한 열

다섯 종류의 동물만이 발언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羊이 회장으로 등장하여 제3장 취지와 설명, 제5장 폐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부분으로 연설로 보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한다. 연회석의 차서에 등장하는 동물과 그들이 주장하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사슴은 인간의 불효함을, 2차 원숭이는 사람의 불공평함을, 3차 까마귀는 인심의 추악함을, 4차 제비는 인간의 염치없음을, 5차 올빼미는 인간이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을, 6차 고슴도치는 속마음에 앙심을 가진 사람을, 7차 박쥐는 인간이 소인배와 간신배같음을, 8차 공작은 인간의 사치를, 9차 나비는 인간의 음란성을, 10차 개미는 인간의 게으름을, 11차 자벌레는 자기 나라의 지리도 모르는 사람을, 12차 나귀는 오래 살아도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않는 인간을, 13차 캥거루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을, 14차 호랑이는 탐욕과 분냄에 빠진 인간을 각각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 한결같이 동물 자신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우화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羊 회장은 '四장 연회석의 차서'에서 다과위원인 다람쥐가 준비한 다과를 들기 전에, 사람들이 음식물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더 인류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맞치 도야지가 실과 나무밧헤 지나다가 썩러진 과실이 잇스면 그냥 집어먹고 그 나무는 쳐다보지도 안코 가는 것고치 그냥 흙부루 먹기만 허느니 우리는 이고치 이름다운 실과를 이런 기회에 모혀 먹을 때에 이 식물을 내신 하느님의 잠간 감사하고 먹는 거시 썩엇흔 일이오니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옵세다하고 양 회장이 인도허는디 텃디에 대쥬지되신 하느님이여 감사허옵느이다 오늘 이고흔 아름다운 실과를 서로 친목허는 무옴으로 먹게 도와주섯스오니 만만 감사허오

이다 이 잔치를 먹고 흥상 화평한 뜻으로 하늘님의 못 자녀들 나타나는 날까지 친목
하여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늘님의 외아들 예수의 일함으로 기도
하십시오 아멘' 79)

위의 기도 내용은 사람과 금수간의 가치전도를 나타내는 알레고리로
서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한 인간의 이기심을 질타하고 있
는 것이다. 또 고기가 아니면 입에 아무 것도 넣을 수 없다는 호랑이
의 불평을 양 회장의 유연한 설득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강박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식한 사람도 순한 양의 감화를
받아서 설복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양 회장이 혼연한 안식으로 능쳐서 하는 말이 호선성이여 엇지 그것치아니 호오
릿가 형실의 습관도 줄디에 곳치기 어렵거든 호물며 장위의 습관이리오 그러나 호선
성을 청렴홀 재에 육종을 쓸 디경이면 골육상식하는 거시 되겟기로 육종은 폐지하고
다만 실과로만 연슈를 예비호엿스오니 안심호시고 잡수실 수 잇는대로 잡수시기를 보
라누이다 더고흔 호랑이가 일개 양 회장의게 감복 되는 거슬 보니 온유가
강포함을 감화식히는 능력이 잇는 줄을 지듯겟더라' 80)

'데—츄 스승'의 발언은 사람들이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중심
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부모와 스승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풍자적
으로 비판하고 있다.

'우리 고향 증성이라도 길드리면 그대로 순복하는 거슬 보고 인류의 종조들이 어려

79) 신소설·2, 앞의 책, pp. 522-523.

80) 신소설·2, 앞의 책, pp. 524-526.

셔브터 부모와 스승의 교훈을 밋아서 주식된 도리와 국민된 의무를 직힐가 헝것마는
홀 수 업는 거슨 더 인종이로다'81)

'데二초 원승이'는 서양의 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재판관의 불공평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원승이의 고기 재판하듯 혼다'는 말에 비유하면
서 풍자하고 있다.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비판하는 내용으
로, 정실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을 원승이가 고기 재판하듯 한다는
옛말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으로 이른바 有錢無罪
· 無錢有罪 또는 有權無罪 · 無權有罪의 부조리한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 재판하는 별장정이 이러하도다 가령 원고는 지빈무의혼 과부로 지극히 원
통혼 일이오 피고는 위세력자로 열 눈으로 보는 바요 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올치못
혼 일이언마는 유세력혼 피고의 허물은 불상하고 익미혼 과부 원고의게로 도라가니
피고의 그 무어시 재판관 가방 속으로 드러가서 원글혼 자는 락송하고 유죄혼 자는
득송하니 그 엇지 공평타하리오'82)

'데三초 가마귀'는 表裏不同한 인간의 마음을 성경의 고사에 빗대어
풍자하고 있다. 자신들은 겉은 겹지만 속은 정직하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피부는 희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상에 지각업는 어린 으희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가마귀는 겹으니 속도 겹으
렷다하나 것춘 비록 겹을지언덩 속춷차 겹으오릿가 엇지 거족만 휩스름하다

81) 신소설·2, 앞의 책, p. 528.

82) 신소설·2, 앞의 책, pp. 530-531.

고 우리 몸 검은 거스로 무옴까지 검다하리오 춤으로 이런 말을 드르면 작년 팔월에 먹었던 오혜 송편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몸 검은 거스로 더의 무옴 검은 거슬 징계 하려 하느이다' 83)

'네四초 제비'는 청렴과 신의를 표방하면서 인간의 염치없음을 풍자하여 깨닫게 하고 있다. 다음은 제비의 발언 중에 나오는 내용으로 꼬박꼬박 철따라 절기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신들보다도 사람들은 자기 분수와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몰염치한 존재로 비판하고 있다.

'형테는 비록 적은 족속일망정 청념헌 것과 신이 잇는 거스로 본티 칭찬을 듯는 새 로소이다 우리가 이긋흔 미물이로되 하느님피서 우리들노 하여곰 이 세상에서 넘치도 업시 제 법대로만 살고져 호는 자들을 경성코져 하옵느이다' 84)

'네五초 올뱀이'는 자신들이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상 큰 도적놈은 백주에 활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守舊니 頑固니 하며 쇄국책을 쓰는 관리들을 비판하면서 문명개화를 위해 종교와 교육의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말슴을 드르시면 밤에 든닌다하니 혹 도적놈으로 아실듯하오나 실상은 큰 도적놈들은 빅쥬대도상에 나온답데다종교와 교육력이라하는 거슨 연약헌 무옴을 건강케 비양하고 부패헌 성질을 새롭게 소성하고 우졸헌 수상을 활발케 운동하논 거신고로 빅인종들이 종교의 힘으로 교육하야 더러듯 강성헌 거시올세다마는 문명의 열미되는 각종기계와 물건은 취하야 가지나 문명의 근본된 그 종교는 알아볼 생각도

83) 신소설·2, 앞의 책, pp.532-533.

84) 신소설·2, 앞의 책, pp.534-535.

업는 7로 눈이 잊서도 맛당히 볼 거슬 보지못하게 되었스니 일항 더 모양으로 지내면
박인종의 노예되기는 우리가 눈 깜작할 동안 될 거신줄 확실히 아나이다' 85)

‘대六초 고순돏치’는 자기들과 관련된 속담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악
한 행위와 낭비하는 습성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더 인류들은 치위를 견디지 못하면 고순돏치 쏘으리돏 혼다하고 아비기 그 조식의
악은 아지못 혼다하야 고순돏치도 제사기는 함함하다고하나 고순돏치
외짜지돏 혼다하나 우리가 외짜지는 거슨 한덩이나 잇고 힘에 알맞하지마는 혼 푼 출
쳐 업는 거달들이 빗슨 덕금덕금 쓰기만하면 무어스로 갑흐려 혼는지 춤 익셔흔 일이
올세다’ 86)

‘대七초 박쥐’는 사람들은 박쥐를 간사한 동물로 여기고 있으나 실
상은 사람들이 이편 저편으로 편을 짜고 서로 이간질하고 참소하며 헐
뜯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사람이 소인배요, 진짜 간신들이라고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박쥐는 中庸의 불편불의무과불급지위중(不偏不
依無過不及之爲中)이라는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들이 짐승과 새
의 중립당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조물주의 뜻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 사롬들은 더 편이 승하면 그 편에가셔 알진알진 이 편이 승하면 이 편으로 와
서 속은속은하니 더 거시 춤 소인배의 톱도요 간세배의 핑식이 아니고 무어신지요 우
리는 증싱편에 가던지 새편에 가던지 서로 화합하기를 위쥬호노라고 증싱도 되고 새

85) 신소설·2, 앞의 책, pp. 536-538.

86) 신소설·2, 앞의 책, pp. 539-540.

도되어 일신량역하야 화목하 것마는 더 인류들은 이 편에 오면 더 편을 리간하고 더 편으로 가면 이 편을 참소하야 량 편에 다 화의만 쓴허노홀 썬만 아니라 나중에는 제 몸쓰지 화를 면치 못하게 되오니 이 거시 조작일이 아니오닛가' 87)

'데八초 공작'은 자기들의 화려함에 빗대어 겉으로만 멋내기 좋아하는 호화 사치자들을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다. 공작새는 자신들이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호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렇게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서 흔들빛썩하고 도라든니는 자들의 의복사치를 버면 말홀수 업는 귀절이 간혹 잇습데다 공샤 극치가 주격에 버셔나고 분수에 지나치면 엇지 향복이되리오 한 이 잇는 지물을 한이 업시 쓰자면 그 결과는 위티하고 곤고한 것 썬일줄 아노이다 엇지 의복으로 루추흔 핁실을 덜홀 수 잇스리오' 88)

'데九초 나비'는 꽃의 증매자로서 화분을 나르는 자신들의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못 남자들은 나비춤을 추는 음녀의 홀림에 넘어가 청춘을 허송하고 몸과 마음을 망치는 모습을 통탄하고 있다. 나비가 꽃의 증매가 되어서 꽃가루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배려하신 은총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 음부들이 빅가지 교티로 장부를 호리랴고 춤을추면 나비춤이라하니 듯기에 창 피흔 말이올세다 나는 이곳에서 더곳으로 놀나갈 세에 놀개를 혼드는 거슨 놀나가는 힘을 엇지논거시오 또 청년의 남즈들은 음부와 짝을지어 남화류 복단풍에

87) 신소설·2, 앞의 책, pp. 541-542.

88) 신소설·2, 앞의 책, p. 543.

세월을 보내다가 기혈이 지산과 흙의 물나가서 필경에는 젊은 처주는 청춘의 과부가 되고 늙은 부모는 킷발노 통곡을 하게하니 우리 금슈곤충들이라도 다 눈물을 흘릴만 하도다' 89)

'데十초 개암이'는 근면의 표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인간이 게을러서 근검 절약할 줄 몰라서 불한당같이 놀고 먹기를 좋아한다고 통박하고 있다.

'우리 족속은 흙 속에 굴을 파고 거처하며 여름 한철에 부끄럽히 먹을거슬 저축하여 룡동의 넘려를 하지 안노고로 항상 험가한 시간이 넘넘지 못호오나 오늘 귀한 청첩을 낚스와 잠간 참석이 되었노이다 오다가 흙아트면 저의 가는 허리를 보존치 못호우슈은 일을 보았습노이다 더 수고호지 아니호고 지물을 엮고져 호는 자여 불한당이라 호는 거시 무슨 뜻인지 아노지오 째내지 아니호는 무리라 호는 뜻이니 그 거슨 곳슈고호지 안니호고 엮고져호는 거슬 그르친 거시 아니노' 90)

'데十一초 자벌네'는 몸을 屈身하면서 이동해 나가는 자기들의 생활을 통하여 진보와 측량의 모범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인문 지리도 잘 모르면서 유식한 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세티는 만물을 다 측량호는 제인고로 나의 시티라고 홀만호지오 내가 압호로 나갈 제면 반도시 문져 전신을 쏘으리는 거슨 무슴 굴호일 이 잇서 그런 거시 아니오라 나의 굴히는 거시 장춧 펄 장본이 올세다 그럼으로 나의 굴신은 진보의

89) 신소설·2, 앞의 책, pp. 543-545.

90) 신소설·2, 앞의 책, pp. 546-548.

방침이오 측량의 모범이올세다 무릇 산천과 토지는 측량치 아니하고 다만 종회장만 가지고 잇스면 맞치 썩의 원테는 공중에 두고 그림만 가지고 잇는 것 고도다' 91)

‘대十二초 라귀’는 유럽의 서반아 속담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90세로 결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긴 수명을 준 것은 뜻있는 일을 통하여 업적을 남기도록 책임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세월만 허송하면서 식량이나 축내는 인간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런즉 九십년 동안에 각각홀 직분이 잇느니 三십년 동안에는 사람의 직분호는 거슨 청년을 앗겨서 공부호야 무슨 스업을 일우어 늦코 三십브터 五십까지는 라귀의 직분을 호는 거슨 우리가 홍상 무어슬 등에다 지고 든니는것 고치 다른 사롬을 유익하게 부즈런이 도와주다가 五십브터 七십까지는 개의 직분을 호는 거슨 집에잇는 물건이나 짓히면서 조손들이나 고르치다가 七십브터 九십까지는 원승이 직분을 호는 거슨 그제는 늙고 다른 총명이 업고로 원승이의 흥내내 듯 다른 사롬이 자면 자고 먹으면 먹고 낚으면 낚고 우스면 웃고 울면 울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거시 춤 만물 중에 그장 귀하다하는 사롬이 되었던 목덕을 고르친 말이라’ 92)

‘대十三초 깡가루’는 자식 사랑의 표상으로 자기를 소개한 후,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깡가루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성품을 주어 그 상징으로 새끼를 넣을 수 있는 큰 주머니(袋鼠)를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1) 신소설·2, 앞의 책, pp. 548-549.

92) 신소설·2, 앞의 책, pp. 552-553.

'습하다 사람이야 엇지 주식 사랑하는 무음이 금수곤충만 못하오릿가마는 인간 풍설을 드른죽 길 가에나 수풀 속이나 성 모퉁이 후미진 곳이나 늪의집 개구멍에 어린 오희를 내어 부리는 악습이 종종 잇다하니 과연인지 한번 질문할 만흔 일이오 더 고치 부린 거슬 미루워 생각해니 아비는 잇스나 그 아버를 누구라고 그르쳐 줄수업는 주식을 나앗스니 엇지 췌췌시 기를순들 잇스리오 그 연고가 분명흐도다 오 호통치라 죄악이 세상이여 식남음너들의 장춧 밧을 형벌이야 예수 공로 아니면 엇지 면홀수 잇스며 더 스부가 청상들의 정상들을 생각해니 가련 흐도다' 93)

'데十四초 호랑이'는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호랑이를 생포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서 탐욕스러운 자와 성질이 급하여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빗대어 풍자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 세상에 정욕으로 탐하는 자는 브레실국 호랑이 죽 듯 혼다 하나니 우리는 죽을지라도 더 인류들의게 교훈거리가 되지마는 더 인류들은 죽던지 사던지 우리들의게 교훈 거리가 될만흔 거시 하나도 업습누이다' 94)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 작품은 개화기 당대의 사회 흐름과 개인의 삶의 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인 각도에서 다양하게 풍자하고 있다. 「금수회의록」과 비교해 볼 때,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 가운데 까마귀와 호랑이만 중복되고 나머지는 다른 동물들이다. 「금수회의록」에서 까마귀는 '反哺之孝'라는 논제로 인류의 불효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인정머리 없는 관리의 횡포와 몰인정에 대해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와 비양심을 풍자하고 있다. 호랑이도 '苛政而猛於虎'라는

93) 신소설·2, 앞의 책, pp. 554-556.

94) 신소설·2, 앞의 책, pp. 559.

옛말을 상기시키며 부패한 탐관오리의 학정의 무서움이 호랑이에 비길 것이 못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의 성질 급한 호랑이를 생포하는 우화를 예로 들면서 탐욕과 분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교훈하고 있다.

그 밖의 동물들도 나름대로 비판대상과 자기 방어에의 발언, 공격 내용을 가지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질적 문제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신앙심을 갖도록 충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설교조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속담과 재담, 야화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이야기로서의 소설양식에 한층 더 접근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캔터키 주에 있는 어스굴 속의 연못에 사는 장님 물고기의 일화, 사람직분·나귀직분·원숭이직분·개의 직분으로 사람의 일생을 단계화 한다는 스페인의 재담, 호랑이의 탐욕과 화 잘내는 성질을 이용하여 생포하는 브라질의 야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금수들이 비판하고 있는 인간의 부정적 행동양상은 개화기라는 특정한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성이나 시사성을 일탈하는 상식적이고 윤리적 차원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이는 회개 대상으로 선정된 인간이 다만 마음이 교만하고 성품이 패려한 자로 한정함과, 또한 금수들이 개진하는 의견에서 인간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기독교적인 도덕의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시의성에 의한 강렬한 현실고발성은 찾을 수 없으며, 반봉건적이거나 반제국을 표방하는 내용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인간 행동을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들의 불효와 노름, 비양심, 불공정, 비청렴, 간사함, 사치, 음란, 게으름, 비정직, 탐욕이라는 것 등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인간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는 자기 옹호의 표상과 본래의 표상 및 비판적 공격내용을 집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기옹호의 표상	본래의 표상	비판적 공격 내용
양: 贖罪羊, 犧牲	純潔, 無感謝, 利己心	忘恩, 背德
사슴: 順從, 道理지킴	不孝, 義務不履行	不孝, 職分 妄却
원숭이: 人類와 類似함	不公平한 裁判官	無錢有罪 有錢無罪
까마귀: 正直, 義理	凶鳥, 沒人情한 官吏	橫領과 沒人情
제비: 清廉과 信義	節候豫報, 沒廉恥	法道따라 本分遵守
올빼미: 夜間의 生活相	頑固한 守舊派, 二重性	敎育과 宗敎어 等閒
고슴도치: 自己保護本能	外華內貧, 保護色	外貌重視, 浪費癖
박쥐: 中立黨, 仲保者	小人輩, 奸臣	奸臣의 離間과 讒訴
공작: 貴鳥, 美鳥, 守分	奢侈를 좋아함	分數를 모르는 奢侈
나비: 中黨者	好色, 淫亂性	淫婦의 觸膺과 賣淫
개미: 勤勉과 貯蓄	不汗黨, 擊開化人	懶怠와 浪費
자벌레: 進歩, 測量	屈身力이 不足함	融通性이 不足함
나귀: 職分어 充實	無業績, 虛弱	無爲徒食
캥거루: 慈愛, 後嗣	母性愛, 黑心	未婚母, 私生兒
호랑이: 百獸의 王	貪慾, 暴惡, 多血質	貪慾과 憤懣

따라서 이 작품의 목적은 그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과 작품 말미에 기록된 '흔편에 숨어 안겼던 더 사름들의 귀가 열녇는지……' 하는 내용이 뜻하는 그대로 인류의 경성과 계도에 두고 있다. 즉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금수와 곤충들의 발언을 통하여 인류의 모순과 비리를 폭로, 비판, 풍자함으로써 인류를 깨우치자는 의도인 것이다.

3. 聖經的 알레고리에 의한 現實批判

성경에서의 알레고리는 도형적 알레고리, 설화적 알레고리, 예표적 알레고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구약성서의 사건들은 신약성서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예표적 알레고리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예언적이며 상황적인 알레고리(prophetic and situational allegory)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⁹⁵⁾ 앞에서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은 기독교사상을 작품 기저에 강하게 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시작되던 1900년대 말에 창작된 두 작품에 대하여 성경의 예언적이며 상황적인 알레고리에 의하여 현실비판 의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금수회의록」의 서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盜賊>같은 도적이 충신이 되고 <顔子>같은 충신이 역적이 되는 역사적 평가의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을 개탄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당시 득세하던 李完用과 같은 乙巳五賊을 盜賊 같은 도적과 악인으로, 울분을 못이겨 자결했던 忠正公 閔泳煥 같은 선비를 顔子와 같은 충신과 선인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독하기로 유명한'도척'이 갖은 도적놈은 청턴 빅일에 스마를 달너 왕궁 국도에 횡행후 사롬이 보고 이상히 녀이지 아니하고 '안즈'갓치 착헌 사롬이 루항에 잇서

95) MacQueen, J., (송낙헌 역), 알레고리, (서울대 출판부, 1980), pp. 22-27.

서 혼 도시락 밥을 먹고 혼 표주박 물을 마시며 간난을 견디지 못하되 혼 사람도 불
상히 넘어지 아니하니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겨우루 되고 충신과 역적이
뵈고엿도다' 96)

다음 내용은 벌(無腸公子)이 연설한 내용으로 일본 침략주의자들을
마귀와 豺狼에 비유하고 있다. 성경적 알레고리로 보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작은 것'과 '약한 자'로, 일제의 야심과 침략행위를 '큰 것'
과 '강한 자'로 우회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직접적으로 남의 권
리와 재산을 속여 빼앗으며, 토지를 강탈하고 국권까지 침탈하는 일제
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 벌의 조상은 죄도 아니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야 각식 초목의 뜻으로
우리의 단답을 삼고 쓸을 농스하야 량식을 만드려 복락을 누리니 조상적부터 우리가
사람보다 나은지라 세상이 오래되어갈수록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오늘날 와
서는 거죽은 사람의 형용이 그대로 잊지마는 실상은 식량과 마귀가 되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약한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밥이되고 큰 거손 적은 거
손 압제하야 남의 권리를 침탈하야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으며 남의 토지를 아서가며
남의 나라를 위협하야 망케하니 그 흉칙하고 악독함을 무어시라 낚으깃소' 97)

다음 내용은 일본의 침략행위가 유례가 없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의 침략자들은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압제했지만, 작금의 현실
은 문명과 개화를 빙자하여 羊頭狗肉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개탄하는 것이다.

96) 신소설·2, 앞의 책, pp. 449-450.

97) 신소설·2, 앞의 책, pp. 475-476.

'넋적 사롬은 호랑의 가죽을 쓰고 도적질 하였스나 지금 사롬들은 겹줄은 사롬의 겹줄을 쓰고 마음은 호랑의 마음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한지라' 98)

다음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하는 행위를 성서의 상황적인 알레고리에 의하여, 일부일처 제도의 혼인윤리가 붕괴되고 남녀간의 부정행실이 창궐하는 현실에 빗대어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롬을 낚시 씨에 혼 남자에 혼 녀인을 낚셨스니 혼 사나회와 혼 녀편네가 서로 저바리지 아니혼은 턴리에 덩혼 인륜이라 사나회도 계집을 여럿 두는 거시 울치안코 녀편네도 셔방을 여럿 두는 거시 울치 안커놀' 99)

「금수회의록」 폐회의 맨 끝부분도 성경적 알레고리로 보면 일본이 침략행위에 대하여 강한 비판과 함께 회개와 맹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사롬이 썩러져서 즘생의 아기가 되고 즘생이 도토혀 사롬보다 상동이 되었스니 엇지하면 조홀고 예수씨의 말삼을 드르니 하느님이 아직도 사롬을 사랑하신다하니 사롬들이 악혼 일을 만히 하였슬지라도 회개하면 구완잇는 길이 잇다하였스니' 100)

「경세중」은 「금수회의록」에 비하여 표면상 현실 비판의식이 강

98) 신소설·2, 앞의 책, pp. 490-491.

99) 신소설·2, 앞의 책, pp. 491-492.

100) 신소설·2, 앞의 책, pp. 496-497.

하게 들어나고 있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적 알레고리로 보면 앞의 「금수회의록」 못지 않게 강한 현실 비판의식을 읽을 수 있으며, 실제 聖句를 직접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범위도 매우 넓다고 생각된다.

다음 羊 회장의 개회 취지에서 성경 이사야와 시편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을 성경적 알레고리에 의한 당대의 현실 비판의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일제와 같은 강대국은 '표범', '사자', '독사', '이리', '살찐 짐승', '곰'으로, 우리 나라와 같은 약소국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아이', '소'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강자와 약자가 함께 共存共榮하는 세계평화의 염원을 이면에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강성전 칠십사십년뒤에 이사야라 하는 선지자의게 하느님의셔 목시로 구르치시기를 그제에 일희가 어린 양으로 더브러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로 더브러 누을 거시오 송아지와 어린 소와 살찐 짐승이 다 흠뻑 잇스리니 어린 으희라도 쓰을니라 소와 곰이 흠뻑먹고 그 삭기가 흠뻑 업드리고 소주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젓떡는 어린 으희가 독스의 구멍에서 작란하고 젓쎄 어린으희가 독스의 굴에 손을 너흐리라.'¹⁰¹⁾

다음 시편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일제의 간교함과 장래에 대하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담이 가득하다'고 한 후, '발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멸망과 고생길'에 있다고 하면서

101) 신소설·2, 앞의 책, pp. 517-518.

장래 일제가 패망할 것임을 성서의 예언적인 알레고리로 암시하고 있다.

'시편에 그르치기를 목구멍은 열닌 무덤고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설은 독수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겨주와 악담이 그득하고 그 발은 사람의 피 흘니는듯 쉼은지라 멸망함과 고성이 그 길에 잇서 평안한 길을 아지못하고 그의 눈압혜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업는지라' 102)

다음 원승이 발언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하여 원승이가 고기 재판하듯 한다는 옛 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부분도 성경적 알레고리에 의하여 해석하면, 당시 열강들이 네델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서 우리 나라 밀사들의 외교적 노력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열강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국제정세의 냉혹함과 부조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고통되 더 무리의 송수홀 때에 무죄한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성문에서 판단한자의게 올모를 낮코 헛된 거스로 의인을 그릇되게한다' 103)

다음 박쥐의 발언에서도 성경적 알레고리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즉 박쥐는 화해의 중보자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지금까지 누천년동안 단 한 번도 외국을 무력으로 먼저 침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도 일제의 야만적인 침략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2) 신소설·2, 앞의 책, p. 518.

103) 신소설·2, 앞의 책, pp. 531-532.

'박쥐가 흰말이 나는 금슈스에 증보자올세다이 주의를 세우자함이 오 또는 내가 스스로 된 거시 아니라 하나님피서 처음부터 나를 조성하신 거신고로 턴품을 변치아니하고 준행하는 거시오 주작으로 하는 거시 아니올세다' 104)

개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잠언(箴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게으른 자에게 불한당이라는 말이 붙여진 연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쾡거루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성품을 주어 그 상징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큰 주머니(袋鼠)를 주신 것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사름들 눈에 좁언이라하는 칙을 보엿스면 우리들의게 와서 도흔 방칙을 씨듯도록 홀 거시시오 그 칙에 말습하기를 게으른자여 개암이의게로 가서 그하는 거슬 보고 지혜 잇는자가 되라 개암이는 두령도 업고 유스도 업고 님군도 업스되 먹을 거슬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쉼수홀 때에 량식을 모흐느니라' 105)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경세종」의 경우에도 앞의 「금수회의록」 못지않게 이면에는 당시의 현실과 일제의 침략 정책에 대한 강한 현실 비판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안국선이 학자이면서 정치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김필수는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가 되어 목회 일선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돈독한 신앙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사명으로 했던 작가의 신분적 차이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하고 우회적인 수법에 의하여 현실 비판의식이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4) 신소설·2, 앞의 책, pp. 540-541.

105) 신소설·2, 앞의 책, p. 547.

IV. 結論

지금까지 개화기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의 시대·사상적 배경과 소설적 특징에 대하여 동물우화소설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동물우화소설은 동물의 의인화라는 표현기법의 특징뿐만 아니라 알레고리를 본질로 하는 우화의 소설적 발전이라는 점과, 인간본성을 풍자하고 사회현상의 模寫的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흥미있는 서사문학의 한 분야이다. 특히 이 두 작품은 여타의 신소설과는 다른 양식인 연설토론체의 문장을 취하고 있으며, 예리한 현실 비판의식과 인간에 대한 멸시와 풍자를 철저하게 담고 있는 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땅의 개화사조를 3단계로 구분할 때, 제1단계 개국의 개념에서, 제2단계 부강의 개념으로, 다시 제3단계 국권사상으로 변천해 간 과정 중에서 작자인 안국선과 김필수는 제3단계에서 활약하였다. 「금수회의록」은 자주국권회복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인 비판의식이 매우 강하며,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관에 융합된 기독교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세종」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비판의식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기독교적 요소는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식(회개의지)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은 각각 여덟 종류와 열 일곱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하여 회의 형태의 발언을 통하여 금수의 일반적 이미지와 인

간의 가치가 전도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발언에 참여하는 금수들은 우의적 풍자수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금수로서 인간의 머리에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불식하여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간을 비속화하며, 인간을 향해 가해지고 있는 온갖 조소와 비난이 정당화되고 있다.

「금수회의록」의 경우 제1석 까마귀부터 제8석 원앙까지 금수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통념적으로 지니고 있는 표상과 반대되는 개념의 자기 표상을 내걸고 그것을 변호하면서 인간을 조소, 비판, 풍자하고 있다. 회의에서 발언하는 동물들은 각기 속담이나 고사성어에서 빌어온 소재목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인간을 교훈하고 있다. 안국선은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과 비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 윤리적 가치관의 상실에 대하여 교훈적인 비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세종」은 「금수회의록」보다 두 배가 넘는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금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회식 자리 형식을 취하여 회장인 羊을 포함하여 열 다섯 종류의 동물이 발언에 참여하고 있다. 「금수회의록」과 달리 동물의 발언에 대한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목은 없으며, 1차부터 14차까지 각 동물의 명칭만 표시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의 풍자 동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본래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폭악성과 사악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과, 다른 하나는 당시의 현실 상황의 악덕과 亂行 및 사회 계층의 모순과 비리를 비판하기 위한 측면이다. 두 작품 중에서 「경세종」의 경우에 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금수회의록」은 후자에 더 근접하고 있다. 본고를 통하여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작품은 자주독립과 민권사상이 지배적 사조로 등장하던

개화의 3단계에 출간되었다. 동물우화 형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사실적인 풍자의식으로 다룬 작품들로서, 개인의 도덕성 회복과 전체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높은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독교도로서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작자들은 온유, 근면, 인내 등 기독교인의 생활신조를 작품 가운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금수회의록」의 경우는 기독교사상과 유교사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경세중」은 완전히 기독교사상에 경도되어 있다.

셋째, 「금수회의록」은 국내외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고서 이의 부당성을 직접적으로 공박하고 있으며, 「경세중」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색을 띠고 있지 않지만, 이면에는 성경적 알레고리에 의하여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금수로서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위치를 극대화하여, 상대적으로 인간을 비속화하고 신랄하게 조소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사악한 본성과 이기심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이 두 작품은 일반적으로 동물에 추상화되어 있는 인간적 속성을 역전시키거나 확대하여 인간 심성의 결함과 인륜도덕의 타락 및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다. 언어적 아이러니와 극적 아이러니에 의한 풍자의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과 금수의 전도된 가치를 광정(匡正)하려는 창작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풍자의 어조는 조소와 야유, 그리고 통매(痛罵)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섯째, 두 작품 모두 전체적인 구조는 액자형태를 이루고 있다. 꿈으로 들어가는 형태와 유산객들이 금수회의를 엿보는 광경이 도입 액자이며, 작품 끝에 화자인 작가가 개입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이

깨우쳤는지 반신반의 하는 모습이 종결 액자이다. 본론에 해당하는 금수 곤충의 발언 내용은 내부소설에 해당된다. 두 작품은 금수들의 연설에 삽입우화로 고사성어, 성경구절, 속담, 예화 등을 광범위하고도 유효 적절하게 동원하여 풍자적 알레고리를 형성하여 풍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곱째, 「금수회의록」은 꿈의 형식을 빌어 허구적 동물 세계로 이입되고 있으며, 「경세종」은 꿈의 장치는 없으나 금수와 곤충들의 친목회에서 발언하는 형태는 「금수회의록」의 회의 형태와 같다. 다만, 「경세종」에는 기념 '촬영' 순서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여덟째, 두 작품 모두 이중 시점을 택하고 있다. 도입 액자와 종결 액자는 작자 자신의 내면 심리와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지적 시점이며, 내부소설은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를 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금수들의 발언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작품 끝의 폐회 부분과 촬영 부분에서 독백을 통하여 독자를 교훈하고 깨우치려는 창작의도를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은 개화기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동물우화 형식을 통한 사실적인 풍자의식으로 개인의 도덕성 회복과 민족이라는 전체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주제가 뚜렷한 신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 연구가 다른 신소설과의 관계 및 고대와 현대의 유사한 유형의 작품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남겨진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자료·사전〉

- 대한성서공회편. 성경전서. 보진재, 1970.
신소설·번안(역)소설 2(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대표신소설선. 번양사, 1992.
한국신소설전집 8. 을유문화사, 1968.
강신표외편.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이상섭편.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전택부외편. 기독교대백과사전 3권. 기독교문사, 1981.

〈저서〉

-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강태근. 『한국현대소설의 풍자』. 삼지원, 1992.
고대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문화사대계 5, 언어 문학사(하)』. 고대출판부, 1971.
국어국문학회편. 『현대소설연구』. 정음문화사, 1986.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2.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78.
김영택. 『한국근대소설론』. 문지사, 1991.
김용직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김우종의. 『한국현대문학사』. (주)현대문학, 1990.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론고』. 아세아문화사, 1980.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태준(박희병 교주). 『중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86.
- 백철·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2.
- 서종택. 『한국근대소설의 구조』. 시문학사, 1985.
- 소재영외.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85.
-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80.
- 송민호·김춘섭. 『개화기문학론』.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89.
-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81.
-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4.
- 윤명구. 『개화기소설의 이해』. 인하대 출판부, 1987.
-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1969.
-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1980.
- 이민자. 『개화기문학과 기독교사상 연구』. 집문당, 1989.
- 이상은외. 『한국의 유학사상』. 삼성출판사, 1981.
- 이인복. 『한국문학과 기독교사상』. 우신사, 1987.
-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2.
- _____. 『한국문학의 해석』. 새문사, 1981.
- _____.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4.
- 이재선·김학동·박종철. 『개화기문학론』. 형설출판사, 1978.
- 임규찬·한진일편. 『임화신문학사』. 한길사, 1993.
-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 전광용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4.

- 전광용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1.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8.
-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 출판부, 1973.
- 『한국문학통사 3-4』. 지식산업사, 1988.
-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세대 출판부, 1983.
- 최민지·김민주.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 한길문학편집위원회편. 『한국근대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90.
- 홍경표. 『한국근대소설 작가의식연구』. 형설출판사, 1984.
- 홍일식. 『한국개화기 문학사상연구』. 열화당, 1982.
- Frye, N.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8.
- MacQueen, J., (송낙헌 역). 『알레고리』. 서울대 출판부, 1980.
- Muecke, D. C.,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 출판부, 1980.
- Pollard, A., (송낙헌 역). 『풍자』. 서울대 출판부, 1980.
- wellek, R. & Warren, A.,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0.

<논문>

- 권영민. “개화기소설의 문체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1975.
- , “안국선의 생애와 작품세계”. 『관악어문연구제2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 芹川翫世. “한일개화기정치소설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 대학원, 1975.
- 김재환. “한국동물우화소설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1988.
- . “동물우화소설의 현대적 맥락”. 『문화전통론집 창간호』.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3.
- 김주현. “개화기 토론체 양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1989.
- 문성숙. “한국근대소설론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 대학원, 1991.
- 박태상.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연구”. 『연세제16집』. 연세대, 1983.
- 안성수. “한국근대소설의 플롯시학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논문』. 교육부, 1992.
- 오승균. “개화기소설에 미친 기독교 영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대학원, 1988.
- 유양선. “개화기서사문학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1979.
- 윤명구. “안국선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1973.
- 인권환. “금수회의록의 재래적 원천에 대하여”. 『고대어문연구18·19합집』.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1977.
- 정학성. “우화소설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1972.

<Summary>

A Study on the Novel of Beast Fabl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Yang, Dong-Gi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e studies on *Sin-soseol* (New novels) have obtained good results since 1970s. However, the studies on the works of 『*Gumsuwhoeirok*』 (the conference records of birds and beasts) by Ann, Guk-Seon and 『*kyongsejong*』 (the warning toll towards the worldly conditions) by Kim, Pil-Su, typical novels of beast fabl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So this thesis sets up a purpose on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works by analyzing the works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The finding results are as follows.

1) These two works were written in the third step of the enlightenment period (1900--1910). The spirit of self-independence and the movement of extending the people's rights were prevailing in that period. The situations at that time are satirized realistically in this two works. The authors intend to tell people to restore their personal morality and to awaken from ignoranc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November, 1993.

2) The Christian principles of life can be found in the works such as gentleness, diligence and forbearance. Confucian ideas are mixed with Christianity in *'Gumsuwhoeirok'*, and we can feel Christianity in *'kyongsejong'*.

3) The author of *'Gumsuwhoeirok'* refutes directly political corruptions by facing up to the domestic political reality. The author of *'kyongsejong'* suggestively levels sarcastic criticism at the political reality by introducing allegory of the Bible.

4) The two authors satirized the defects of human minds, the corruption human morality and social contradictions by reversing or magnifying the human natures abstracted in animals. They intend to alter and extend the reversed values between human and animals by applying the technique of satire with linguistic and dramatic irony. The main current in the satirical tone consists of ridicule, sarcasm and invective.

5) The overall structures in the two works have *Rhamen* form (a picture frame form). The opening *Rhamen* form is made up of the parts of picnickers entering a dream world and peeping at the scene of animals in conference. In the closing *Rhamen* form, the narrator intervenes in the conference and demands repentance of people and suspects their repentance.

6) The two works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 two authors develop the story using the means of utterance in conference. The narrator goes into the fictional animal world through dream in *'Gumsuwhoeirok'*. And the part of taking a souvenir picture is added in *'kyongsejong'*.

7) Both two works take double view-point. They take omniscient-author view-point in both opening and closing *Rhamen* form so as to tell the story by means of dream and to describe their inner psychology. But in the internal parts of the works, they keep the first person-observer view-point in order to keep distance between the narrator and the objects. So they give objectivity to the utterances of animals, and they intend to instruct and enlighten readers in the parts of soliloquy in the end parts of works, where animals close conference and take a souvenir picture.